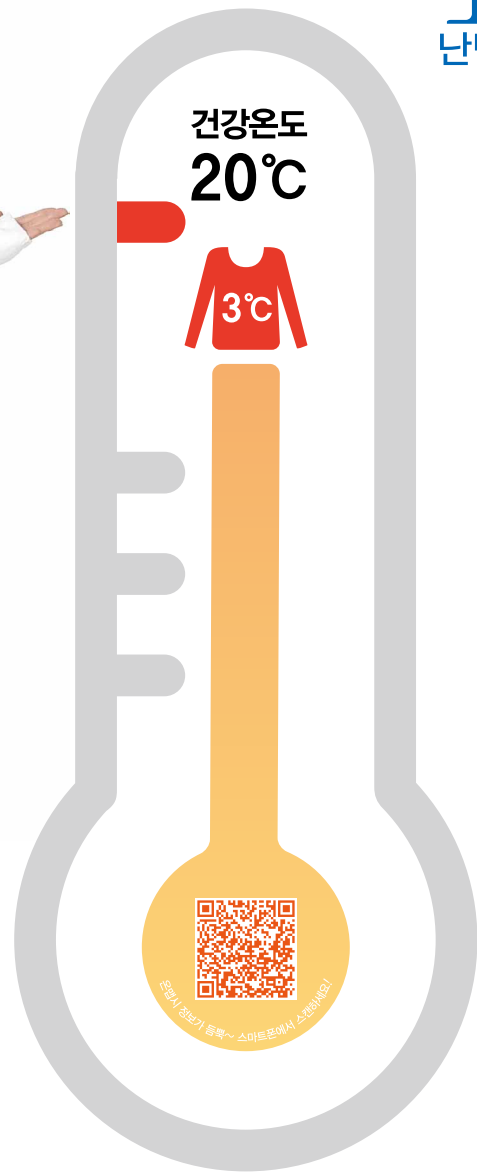
Weekly 공감

2012.12.19 NO.188
korea.kr/gonggam

'문화의 시대'가 왔다 열려라! 문화 대한민국 P19~37

문화가 성장동력이다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前문화관광부 차관

지금이 '문화의 시대'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가수 싸이 덕에 더욱 호강을 누리고 있는 한류만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본 우리 국민이라면 한류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금방 알 수 있다.

어떤 이들은 한류의 영향력을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중국이든 동남아시아든 중앙아시아든 어디든 가보라.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오피니언 리더들도 한류 이야기에 열을 올린다. 문화가 밥 먹여주느냐고 핀잔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문화산업 시장은 이미 국내 시장은 연매출 83조원, 세계 시장은 약 2천3백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가히 문화의 시대라 할 만하다.

우리 문화, 그리고 문화산업은 그동안 많은 영역에서 크게 성장해왔다. 흔히 문화정책의 3대 목표로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 문화향수권의 확대, 문화경제력의 활성화를 든다. 정부에 따라, 그리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 문화정책의 목표는 변하지만 사실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목표들이다. 최근 들어서는 문화와 경제의 만남을 통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문화경제에 관한 목표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고, 복지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면서 문화복지에 관한 정책적 중요성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이 같은 흐름에 맞추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류를 중심으로 국가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사실 한류는 그 자체로도 문화적·산업적 효과가 크지만 우리 제품의 수출과 국제교류에 끼치는 엄청난 효과를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화복지가 강조되며 이 분야에 재정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수권도 상당히 확대되었다. 콘텐츠진흥기금 설치와 콘텐츠진흥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 작업이 성사되지 못했지만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상당한 기반을 구축했다. 런던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계에서 거둔 성적과 외래관광객 1천만명 달성 등도 대견한 일이다.

*한류를 중심으로 국가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이 같은 흐름에 맞추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문화산업 시장은 연매출 83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제 문화는 국가 발전의 장식품이 아닌 본체로,
그야말로 성장동력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 같은 나름의 정책적 성과와 문화의 화폐적·비화폐적 경제가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등 일부에서 '문화는 아직도 외양을 단장하는 장식품' 정도로 인식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문화는 국가 발전의 장식품이 아닌 본체로, 그야말로 성장동력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가들이 쏟아내는 말의 성찬거리가 아닌 정책현장에서 최우선의 국정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미래 창조사회에 대비하려면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가 인구에 회자되는 문화의 시대에 다시 한 번 문화를 생각한다. G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Contents

188호
2012.12.19 통권 289호

표지 이야기 | K팝에서 한글까지…. 지난 5년간 세계로 퍼져나간 한국 문화가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꽃을 피웠다. 싸이의 말춤에 몸을 들썩이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 지난 10월 멕시코에서 열린 한글쓰기 대회에서 현지 대학생들이 한글을 쓰고 있다. 이게 바로 '한국 스타일'이다. 사진·연합

기획특집

한민족의 끼와 신명 세계에 K컬처로 과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5위를 달성하더니 '소녀시대' '동방신기'를 위시한 아이돌 그룹이 K팝 열풍을 몰고 왔다.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31개국에 수출됐다. 김기덕 감독은 베니스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거머쥐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신드롬은 꺼질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올해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이 1천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문화예술·체육계에 들려온 낭보는 한민족의 신명이 세계와 '통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K POP BOOK MOVIE SPORTS

19

38

54

44

위클리 공감 korea.kr/gonggam
발행일 2012.12.1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887
정기구독 희망하시는 분은 02-2625-3294로 연락주십시오. 현재 구독자이지만 구독을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02-2625-3294 또는 jjsmall@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Lounge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27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Weekly 공감〉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를 읽고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기사 읽고 너무 기뻐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기뻤어요. 중국이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아리랑을 올리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아리랑이 이번에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경쟁력과 국격을 높이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아리랑에 대한 지속적인 전승과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윤(32·회사원·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정착시켜야

'기획특집–아름다운 인터넷 세상'편을 보고 와 닿은 점이 많았어요. 저도 중·고등학생 아이가 둘 있는데 컴퓨터 가지고 옥신각신하느라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거든요.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만큼 무서운 매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제가 컴퓨터를 지키며 자녀들을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아무쪼록 정부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윤리교육 및 참여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선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최현례(주부·48·충남 천안시 동남구)**

검소하고 합리적인 혼례문화 공감

분에 넘치는 결혼식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실제로 결혼식 비용이 부담스러워 미루는 경우도 봤습니다. 체면과 격식을 차리다 보니 결혼 당사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호화 혼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적이었습니다. 공공기관시설을 일반시민에게 예식장으로 제공, 국민 인식개선 등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나라의 혼례문화도 합리적이면서 건전하게 바뀌리라 기대합니다.

박종근(26·회사원·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정부의 자살위험군 미리 감지 노력 반가워

올해는 유난히 사회적 이슈로 자살문제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기사에서 말하듯 우리 국민의 삶의 목표가 '성공'에 맞춰져 있다 보니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은 낙오자가 돼버리죠. 문제는 거기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치료해주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자살예방법을 시행해 사람들의 자살 시도를 사전에 방지할 여러 방법들을 모색한다고 하니 반가웠습니다.

여진희(36·주부·대전시 동구 가양동)

독자 인터뷰

"뿌리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계속 성장하길"

조석(40·직장인·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회사원 조석씨는 〈위클리 공감〉을 보며 정부정책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사회이슈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경제와 문화행사에도 관심이 많아 관련기사를 꼼꼼히 읽고 있다.

187호에서 인상 깊었던 기사는.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기사였어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주력산업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뿌리산업이 첨단산업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 외에 눈길이 가는 기사는 어떤 게 있는지.

"공감카툰입니다. 짧막한 글과 단순한 그림 속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실렸던 '아, 그놈의 근심 덩어리들'편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공감카툰을 꼭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위클리 공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의 긍정적인 성과들이 소개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점은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싸이의 세계진출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OECD 국가의 외국문화 수용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세계로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자 인터뷰 신청받습니다. 〈위클리 공감〉을 읽으신 후 느낀 점을 간략한 자기소개, 연락처, 얼굴이 잘 나온 사진과 함께 메일(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알 림

제6기 정책기자단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 정책포털(korea.kr)이 2013년을 함께 할 제6기 정책기자단을 모집한다. 정부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활동은 정부정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생활 속 정책 체험기, 정책 제안 및 개선 방안 등을 기사로 작성하거나 SNS로 홍보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reporter.korea.kr/event/2013reporte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응모대상 |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활동내용 | 정부정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발굴해 생활 속 정책 체험기, 정책 제안 및 개선 방안 등을 기사로 작성하거나 SNS로 홍보
응모일정 |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 | 2013년 1월~12월까지
활동혜택 | 원고료 지급, 활동 경력증명서 발급, 우수 활동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정책기자단 명함 발급 및 외장하드(320G) 제공 ▲정책기자단 기사집 발간
접수방법 | 홈페이지의 기사양식 다운로드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한 기사와 개인이력 작성해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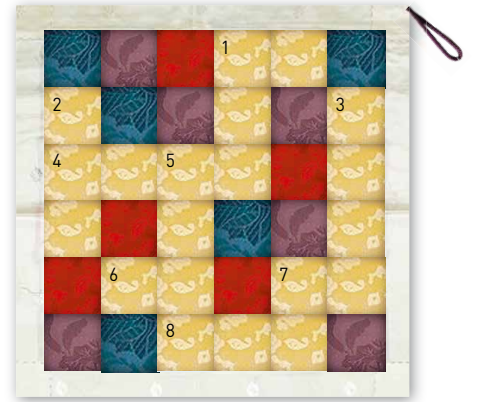
제10회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외교통상부 후원으로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참신한 논문을 공모한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KOICA 수원국 중 1개국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수상자의 논문집이 발간되고, 국제협력단 직원공채 시 서류전형의 우대 혜택이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oi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대상 |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석사 및 박사과정 포함) 개인 및 팀(3명 이내)을 구성하여 응모 가능
공모주제 | 공적개발원조(ODA)를 주제로 하여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 ▲정책 시사점 도출 및 정책 활용 가능성이 높은 주제 우대 ▲I Post–2015(MDGs), 부산글로벌파트너십, PPP관련 주제 우대(가산점 부여) ▲I ODA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주제 포함
공모기간 | 2013년 2월 20일까지
논문접수 | 2013년 2월 13~20일
공모분야 | 논문
시상내역 | ▲최우수상 1팀 장학금 3백만원 ▲우수상 2팀 장학금 각 2백만원 ▲장려상 3팀 각 1백만원
제출방법 | 본문 내용 1만~2만자 내외(요약 포함, 국문 혹은 영문 작성 가능)
접수방법 | callforpapers@koica.go.kr / ☎031–740–0494

바로잡습니다 187호 17쪽 '대통령의 5년 순방성과' 그래픽 내용 중 연도 표시 부분에서 2009년 칸에 2010년이 함께 들어가는 바람에 다음 칸들의 연도 표시가 잘못 나갔습니다. 이에 2011 부분은 2010으로, 2012 부분은 2011로, 마지막 빈칸은 2012로 바로잡습니다.

Puzzle 공감퍼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2월 27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잠을 자거나 누울 때에 머리를 괴는 것.
4. 중세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 혁신 운동. 문예 부흥.
6. 소의 살코기나 간, 천엽, 양 등을 잘게 썰어 양념을 해 날로 먹는 음식이죠.
7. 나라 간에 서로 물품을 사고 파는 일. "대한민국은 지난해에 이어 OO 1조달러 연속 달성과 세계 OO 8강 진입 등으로 저력을 보여줬다."
8. 사랑으로 쓰는 집채.

세 로
1. 우리 영화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
2. 바퀴에 홈을 파고 줄을 걸어서 돌려 물건을 움직이는 장치. 두레박, 기중기 등에 쓰이죠.
3.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동시에 통역하는 것.
5. 주로 장례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미리 가입한 회원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죠. 가입할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7. 채칼 따위로 치거나 가늘게 썬 무. 무쳐서 반찬으로 먹습니다.

〈Weekly 공감〉186호(12월 5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하나하나 **3** 눈금자 **5** 호반 **7** 이체 **8** 주역
세로 1 하여금 **2** 나로호 **3** 눈길 **4** 자유무역 **6** 반도체

〈Weekly 공감〉186호 '공감 퍼즐' 당첨자
이영주·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노정원·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류가희·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송종윤·경남 창녕군 남지읍
기영천·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때이른 한파에 전력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내복입기·절전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실천가능한 에너지절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열고 영업 안 돼요!… 네온사인도 끄세요!

내년 2월 22일까지…공공기관 1만9천곳 섭씨 18도 난방 제한

9일째 이어진 한파에 동계 전력사용이 급증하면서 지난 12일 올겨울 들어 네번째 전력경보가 발령됐다. 전력거래소는 12일 오전 8시51분 예비전력이 순간적으로 3백5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하락해 전력수급 경보 '관심'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전력경보 '관심'은 예비전력이 4백만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질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국민 절전운동과 함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들어갔다.

전력거래소는 12월 12일 최대 전력수요가 7천5백20만킬로와트에 달하면서 예비전력이 2백91만킬로와트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이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은 수요관리(2백만킬로와트), 구역전기사업자 공급확대(50만킬로와트), 수요자원시장 운영(50만킬로와트) 등을 실시해 예비전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본격적인 한파와 함께 전력수급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력수급은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생활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원전 재가동, 수요관리 등 수급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겨울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서 지난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범국민 절전운동과 함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들어갔다.

오전 10~12시엔 난방기도 순차 운영

우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고 있다. 공공기관 1만9천곳은 난방온도 섭씨 18도 제한,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등의 한 단계 높은 제한조치가 적용된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계약전력 3천킬로와트 이상인 6천개 사업체는 내년 1~2월 전기사용량을 올해 12월 사용량 대비 3~10퍼센트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 계약전력 1백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천여 개소와 2천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백76곳은 섭씨 20도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하게 된다.

최근 사회의 비판을 받는 개문(開門)난방 영업도 금지된다. 개문난방은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오후 피크시간대인 5~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한다.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된다. 예비전력이 4백만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피크시간대인 10~12시에 공공기관 1만9천여 곳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4백76곳의 난방기를 순차 운영토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범국민 절전운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상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핵심이라고 보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벌이고 있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인 '아싸가자((아)껴서 나누자, (사/싸)랑한다 건강온도, (가)뿐하다 내복 스타일, (자)~뽑자 전열기) 국민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지경부는 이 캠페인의 4대 실천요령인 ▲에너지 사랑나누기 ▲건강온도 20도 지키기 ▲내복 스타일 ▲전열기 뽑기 등을 통해 절전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가정 에너지 절약 50가지 방법' 실천을

국토해양부는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50가지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겨울철 전력피크는 오전 10~12시, 오후 5~7시 두 차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시간대 전열기 등의 전력소비가 많은 전기제품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겨울철 전력소모 주범인 전열기구의 사용은 가급적 줄인다. 가스보일러나 지역난방 등을 주난방으로 사용하고 전기장판·전기히터·전기온풍기 등의 전열기는 반드시 보조난방기기로 필요할 때 잠깐씩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열기 사용 자제 등으로 추위를 견딜 수 없다면, 내복이나 카디건을 입거나 무릎담요 등을 사용하면 3도 정도의 체온을 보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실내온도를 3도 낮추면 겨울철 난방 에너지의 20퍼센트를 절약할 수 있다. 또 문틈이나 창틈 사이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문풍지나 방풍 비닐 등으로 차단하면 약 10퍼센트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기전력을 줄이는 것이다. 최근 가정에 많이 설치된 셋톱박스와 인터넷 모뎀·공유기 등 컴퓨터 주변기기는 대기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품들이다. 사용하지 않는 멀티탭의 전원은 모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레인지는 가전제품 중 가장 많은 대기전력을 소비한다. 1년에 소모하는 전력량은 약 78킬로와트이지만 대기전력량은 3분의 1 수준인 24킬로와트에 달한다. 대기전력 소모가 많은 전자레인지의 전원을 꺼두는 것만으로도 겨울철 전력수요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처럼 전기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플러그만 뽑아도 사용 에너지의 10퍼센트를 절감할 수 있다. 대기전력으로 낭비되는 비용을 환산하면 연간 5천억원에 이른다.

낮시간 동안에는 창가, 복도의 전등은 꺼두고 최대한 자연채광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백열등이나 할로겐 등을 에너지절약형 형광등이나 LED 등으로 교체하면 50퍼센트 이상의 전기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G

글·김남성 기자

전력수급 비상시 절전 참여 요령

가정에서
-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등 난방기기 작동을 자제한다.
- 다리미, 청소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의 사용을 중지한다.
- 재난상황 파악을 위한 라디오, 텔레비전 외의 가전제품 사용을 중지한다.

사무실에서
- 안전과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을 남기고 모두 소등한다.
- 사무실 내 난방설비 가동을 중지하고 개인용 난방기기를 모두 끈다.

상점·상가에서
- 안전과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을 남기고 모두 소등한다.
- 난방설비 가동을 중지하고 전기장판, 온열기 등을 모두 끈다.
- 자동문, 에어커튼 사용을 멈추고 환기 팬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공장·산업체에서
- 비상발전기의 가동을 점검해보고 운전상태를 확인한다.
- 사무기기를 끄고, 사무실 소등 및 공장내부의 조명은 최소화한다.
- 공장관리자는 중앙조절식 난방설비 가동을 중지하거나 온도를 낮춘다.

대한민국을 알리는 국가 홍보관이자 녹색생활 체험관인 청와대 사랑채에는 12월 13일 영하의 날씨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곳은 절전형 LED등 사용, 태양광 설비와 지열냉난방장치 등으로 전기 사용을 절감하고 있다.

1 지하 전기실 변압기의 폐열을 활용한 급탕 보일러.
2 2층에 있는 청와대 사랑채 에너지관리시스템 키오스크.
3 자연광을 광섬유로 연결한 화장실의 자연채광등.
4 2층 글로벌리더십관의 녹색성장관.
5 지열냉난방장치의 연결관들.
6 청와대 사랑채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집전판.

"에너지 샐 틈이 없네!"… 녹색생활 실천 현장

저탄소 녹색건물로 설계… 자연채광과 태양광·지열 냉난방 시설 갖춰

올겨울 갑작스런 추위로 겨울철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30퍼센트의 탄소 절감을 약속하고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지난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공포해 공공기관의 경우 1등급 에너지효율 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관 2년 만에 서울의 명소로 자리잡은 청와대 사랑채는 이러한 정책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녹색생활 체험관이기도 하다.

강추위, 폭설과 함께 찾아온 올겨울. 나들이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청와대 사랑채로 발길을 돌려보면 어떨까.

서울 종로구 효자동 삼거리를 사이에 두고 청와대와 마주보고 있는 청와대 사랑채 주소지는 효자로 13길. 기존의 효자동 사랑방을 개축해 2010년 1월 개관한 청와대 사랑채는 역대 대통령들의 발자취와 서울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홍보관. 지상 1층에 대한민국관, 서울홍보관, 카페 등이, 지상 2층에 청와대관, 글로벌리더십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9월 20일 2층 전시관 개편을 마치고 '스마트 전시관'으로 재개관한 후 볼거리가 더욱 많아졌다. 먼저 스마트폰을 활용한 무인안내 서비스가 도입되어 무료로 '청와대 사랑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 위치에 맞춰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모두 4개 국어로 지원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스마트 전시관'으로 재개관

2층의 청와대 사이버 탐방 코너는 '스마트 전시관'의 하이라이트. 청와대 본관을 비롯해 춘추관, 녹지원, 영빈관 등 청와대 주요 경내를 HD급 실사 영상으로 제작해 관람객들이 실제 내부를 거니는 듯한 느낌을 재현하고 있다.

청와대 사랑채 안내 데스크의 김이슬씨는 "지난 9월 재개관 이후 하루 최대 4천8백명의 관람객이 찾기도 했다"며 "요즘은 추위 때문에 줄긴 했어도 매일 2천~3천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람객 10명 중 2명은 내국인, 나머지 8명은 외국인 관광객이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수다.

청와대 사랑채를 둘러볼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청와대 사랑채가 녹색생활 체험관이란 사실이다.

먼저 청와대 사랑채는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녹색건물로 설계됐다.

1, 2층 전시관 면적이 총 2천3백86.85평방미터에 이르는 청와대 사랑채는 고단열 마감재와 단열창틀을 사용해 에너지 손실을 줄였다. 지하에서부터 지상 1, 2 층에 설치된 전등은 전부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등이다.

화장실 천장 등에 설치된 자연채광등도 특징. 이는 지붕 위에 설치된 프리즘을 통해 받아들인 자연광을 광섬유를 이용해 화장실까지 끌어들인 것이다.

또 건물 옥상에는 10.8킬로와트 용량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전기(계약 전력 7백킬로와트)와 함께 사용되어 일반 전기의 사용을 줄이고 있다.

지하에는 지열냉난방장치(시간당 27만2천킬로칼로리 용량)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연중 일정하게 유지하는 지열(섭씨 15도 안팎)을 이용한 것으로, 청와대 사랑채 앞 광장 지하에 1백50미터 깊이로 30개의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해 여름에는 열기를 내보내고 겨울에는 지중의 열을 흡수해 냉난방을 한다.

"생활하수서 발생한 폐열까지 환수해요"

청와대 사랑채의 장대욱 관리소장은 "이 밖에 전기실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열은 물론 각종 생활하수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폐열 환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력 소모를 한눈에 보고 관리하는 '전력수요제어시스템'으로 에너지가 새나갈 틈을 막고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열과 전기를 관리함에 따라 최근 1년간 평균 전력수요가 한국전력과의 계약전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백킬로와트 수준에 머물 정도로 에너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사랑채의 에너지 절감 현황은 2층에 설치된 '청와대 사랑채 에너지관리시스템 키오스크'를 통해 볼 수 있다.

청와대 사랑채는 월요일이 휴무(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이 휴무)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무료 관람이다. 이곳 1층 카페에서는 널찍한 창문 너머로 청와대와 경복궁의 설경을 감상하며 따끈한 전통차와 비빔밥, 된장찌개도 즐길 수 있다.

글·박경아 기자 / 사진·이경민 기자

문의 청와대 사랑채 www.cwdsarangchae.kr ☎02-723-0300

"소비자가 만만해?"… 기만행위 이제 그만!

부실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막게 '은행 우선 가이드라인' 제정

소비자의 권익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는 잇따른 상조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할부거래법 취지에 적합하게 상조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또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될 경우, 일단 판매중지 혹은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임시중지 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말썽 많은 대부중개업자들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상조업체 미래상조119는 이웃사촌상조 등 23개 업체로부터 회원을 인수하면서 마치 법정 보전비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선수금(회원이 그동안 인도업체에 납부한 돈) 관련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정 보전비율에 따른 예치를 하지 않고 거래했다. 두레상조와 희연상조는 미래상조119에 회원을 인도하면서 영업등록 및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상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12월 10일 의결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자금여력이 부족한 상조회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을 인수할 때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상조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치은행이 할부거래법 취지에 적합하게 상조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예치계약서 개선과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법을 단 1회만 위반해도 즉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 법정 보전비율을 위반한 업체에겐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조합 가입이 어려운 부실업체는 인수·합병, 계약이전 등을 통해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련제도를 아울러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12월 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은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돼 있다.

7일 확정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비전은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위는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등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현행 개별 소비자 관계 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규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사업자·소비자간 거래에서 사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취소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와 함께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는 '소비자거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인터넷 사기 사이트와 전자상거래 상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의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단 판매중지 혹은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임시중지 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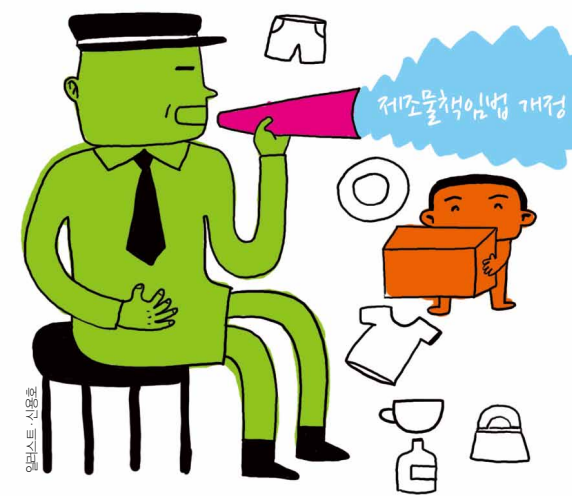
인터넷 쇼핑몰 위법 땐 사이트 임시폐쇄

소비자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는 상품 비교정보 제공 대상 품목을 단순 소비재에서 내구재, 서비스 상품으로까지 확대하고 환경·윤리적 기업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품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상품 비교정보 대상 품목을 내구재와 서비스 상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품질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기업윤리를 고려하는 책임 있는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마크, 친환경·유기농 인증마크 등을 획득한 제품을 테스트 대상 제품에 포함시키고 이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 신고되는 대부중개업자들의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스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스팸 정보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 불법 스팸을 전송해 통신서비스가 해지된 경력이 있는 악성 스패머에 관한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거쳐 통신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악성 스패머의 통신서비스 재가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 법원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법원의 태도를 반영해 향후 모든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12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에만 적용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를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배달용 돼지고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음식명 크기와 동일하게 음식이름 옆이나 하단에 표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도 확대된다. 식약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위생지도 등을 담당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현행 22개에서 3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50~1백명 미만의 어린이집에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지원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해, 20~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가능하도록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현재 20개에서 22개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G

글·이범진기자

일러스트·신용호

한국은 2012년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무역규모 8위에 올랐다. 20년 전 이탈리아는 무역규모 6위에 이르는 무역대국이었다. 지난 12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서 한국무역협회 및 관계사 임직원들이 세계 무역 8강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범국가적 협업에 기대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연 통상외교 강화하고 FTA 확대도 지속을

1994년 대한민국은 자신보다 규모가 작은 싱가포르에 무역규모로 순위가 밀렸다. 당시 우리의 무역규모는 13위. 우리와 비슷한 위도의 반도국가 이탈리아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에 이어 6위였다. 인구수로 우리의 1.2배에 불과했던 이탈리아는 우리가 따라잡기에는 거인이었다. 하지만 2012년 한국은 이탈리아를 제치고 8위에 올랐다.

성수대교 붕괴로 뒤숭숭했던 1994년 연말 무역실적 최종집계를 마친 통상산업부는 초상집이 됐다. 상승세가 유지되던 무역규모 국가순위가 싱가포르에 추월당해 한 단계 떨어져 13위로 밀려났기 때문이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도 2.2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쪼그라들었다.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의 가격하락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외환위기의 전조임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

당시 무역규모 6위까지 철옹성을 구축했던 상위권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순서였다. 무역규모 6위였던 이탈리아는 국토면적은 남한의 3배, 인구수는 1.2배로 우리와 유사한 여건이었지만 무역규모에는 큰 격차가 있었다. 이탈리아 따라잡기는 당시 절망에 가까운 '희망사항'이었다.

2012년, 우리는 드디어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무역규모 1조달러를 초과하면서 올해는 국가별 순위에 있어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8위에 올라섰다. 한국이 20년도 못 되는 기간에 국가순위를 5등이나 끌어올린 것은 국민 모두 기뻐할 경사다.

세계 불황 속 올해의 1등 공신은 석유제품

우리나라 수출실적은 1964년에 처음으로 1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를 기념해 '수출의 날'이 제정됐고 1987년부터는 12월 5일로 날짜를 변경해 '무역의 날'로 확대 개편됐다. 올해 수출은 5천4백9억달러, 수입은 5천2백1억달러로 무역수지는 2백95억달러 흑자로 추정된다.

이는 국제경제 동반침체의 열악한 환경에서 얻어낸 소중한 성과다. 주요 교역상대인 미국은 재정절벽에 놓여 소비심리가 극히 위축됐고 유럽연합(EU) 각국은 자국 또는 회원국의 재정적자로 인한 경제 위축이 심각하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성장률 둔화의 영향으로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올해 수출의 효자상품은 석유제품이다. 원유를 전량 수입함에도 우수한 정제기술을 통해 석유제품을 중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남미까지 수출하고 있다. GS칼텍스와 SK에너지 등 정유사 수출은 5백50억달러로 금년도 수출품목 중에서 최대실적이며 수출증가율도 지난해 대비 10.8퍼센트로 단연 1등이다.

수출경쟁에는 각국 정부가 직접 뛰어들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 수출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고 대통령은 최고경영자(CEO)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49차례나 해외순방에 나서면서 통상외교에 매진했다. 아세안국가에 대한 수출실적 증가와 중동지역의 대규모 원전공사 수주는 대통령 공이 컸다.

정부와 관련협회의 팀플레이 효율도 높아

정부업무 중에서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는 수출지원은 정책고객 만족도가 아주 높다.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나 챙기고 일이 터진 후에 사후적 조치만 남발하는 무기력 행정과는 정반대로 지식경제부 수출지원은 현장 중심으로 뛰면서 돌출하는 장애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의 팀플레이 효율도 매우 높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속한 확대는 적절했고 효과적이었다. 현재 미국과 아세안 등 8건의 FTA가 발효돼 45개국이 적용대상이며 터키 및 콜롬비아는 타결됐고 캐나다, 중국, 일본 등은 협상 진행 또는 준비 중이다. 한·미FTA는 올해 초 총선 정국의 복잡한 상황에서 야권의 폐기주장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무역협회 역할이 우리 무역 선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한덕수 무역협회장은 "FTA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를 이끌어서 기업이 한·미FTA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당당한 입장을 밝혔다.

무역협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FTA 체결업무에 집중됐던 공무원 인력을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중심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무역규모 5억달러는 1964년에 달성됐으며, 2005년에는 5천억달러의 새로운 금자탑을 세웠다. 이로부터 6년 후인 작년(2011년)에는 2005년의 2배인 1조달러를 달성했다. 이제 무역규모 2조달러를 앞당기는 것이 새로운 과제다. 그러나 국제경제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자국기업 보호성향은 강화되고 제품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수월성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조선, 자동차, 휴대전화, 석유제품 등에 몰려 있는 수출품목을 다각화하고 중국, 미국, EU 등에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적 편중을 아프리카, 중남미, 아세안 등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다변화해야 한다.

기업경영과 국가경영이 함께 손잡아야

수출품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부담을 줄이고 노사협력을 강화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세금부담도 줄이고 환율은 안정적으로 관리해 환율변동 위험과 이를 헷지하기 위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전력체계도 합리적으로 운영해 환경 및 안전성을 우선하되 고비용 신재생에너지의 성급한 확대로 인한 전기료 부담 폭증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출의 온기가 국내에도 퍼질 수 있도록 해외로 이전한 생산 시설의 국내 귀환을 촉진하고 해외 공사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무역 2조달러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수출업체 기업경영과 '주식회사 대한민국' 국가경영이 손을 맞잡고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 G

글·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올해 품목별 수출 순위 (단위 : 억달러, 11월 기준)

순위	품목	금액	순위	품목	금액
1	석유제품	517	6	선박	369
2	반도체	461	7	철강	342
3	일반기계	440	8	액정디바이스	256
4	자동차	430	9	자동차부품	225
5	석유화학	420	10	무선통신기기	208

2012년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분야	품목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
리튬전지	•2차전지
디스플레이	•TFT-LCD •PDP •액정(LCD) TV
가전	•DVD 홈씨어터
조선	•드릴십 •초대형 컨테이너 •LPG·원유·LNG 운반선 •선박용 전선

자료 지식경제부

“찾아라!… 그럼 13번째 월급의 주인공 된다”

올해부터 월세·전월세보증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다. 흔히 말하는 ‘13번째 월급날’이 다가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바뀐 제도를 숙지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13번째 월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2012 연말정산의 개요를 둘러본다.

연봉 3천5백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살림살이는 빠듯하다. 월세 50만원이 특히 부담스럽다. 한 해에 6백만원은 A씨에게 큰 짐이다. 조금이라도 이 비용을 줄이고 싶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 월세가 더 오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2 연말정산은 A씨 같은 월세 생활자에게 반가운 소식을 담고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먼저 공제 대상자를 넓혔다. 종전에는 연간 총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천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연봉 3천5백만원인 A씨도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제금액은 지급한 월세액의 40퍼센트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혼의 1인 가구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직불카드 공제율 30퍼센트로 확대

주택자금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대차계약 증서에 확정일자도 꼭 받아야 한다.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공제도 확대한다.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해 준다. 종전에는 대출기관에서 차입할 경우에만 대상이 됐지만 올해에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일반 개인에게 빌린 자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준다.

주택자금공제 외에도 환영할 만한 소식이 또 있다. 직불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을 종전 2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한다. 직불카드 사용액 가운데 총소득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총소득액이 4천만원이고 직불카드 사용액이 1천5백만원인 경우, 총소득액의 25퍼센트인 1천만원을 초과하는 5백만원의 30퍼센트인 1백5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종전 기준 1백25만원에서 공제액이 25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종전대로 20퍼센트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30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 한도는 1백만원이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조치다.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학부모들도 부담을 덜게 됐다. 종전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국외 유학에 대한 규정에 따른 ‘유학 자격’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유학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고등학생은 3백만원, 대학생은 9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종전대로 유학 자격을 갖춰야 공제대상이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국외교육비 납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법정기부금 공제기간도 3년으로 늘려

주택담보 대출자들을 위한 소식도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유형과 차입금의 상환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상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이 늘어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퍼센트 이상에 대해 고정금리로 이자를 지불하고 있거나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공제액을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한다.

법정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연장하기로 했다.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깜빡 잊고 영수증을 챙기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이 있더라도 3년 안에만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종전대로 5년이다.

글·변형주 객원기자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조선DB

해마다 이맘 때면 직장인들이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거이 연말 정산이다. 올해는 관련 세법이 바뀌는 만큼 여느 해보다 더 꼼꼼히 확인해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종전	변경
주택자금공제 대상	총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총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단독 세대주 포함)
직불카드 공제율	25%	30%
신용카드의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	20%	30%
고등학생 대학생 국외교육비 공제 대상	유학자격자	유학자격 요건 폐지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한도	1천만원	1천5백만원(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1년	3년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미리 파악 가능

연말정산은 사실 번거로울 수 있다. 국세청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손쉽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다. 올해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자녀들의 교육비를 좀 더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전용팩스(1588-7020),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면 된다.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가 필요없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의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페이퍼리스(paperless) 연말정산’도 마련했다.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 반영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선 회사 측이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파일 자료추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본인의 ‘13번째 월급’을 개략적이나마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2012 소득공제 자료는 2013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의료비 공제 안 돼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공제 혜택

연말정산은 그야말로 '아는 것이 힘'이다. 소득과 소비의 수준이 같아도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제액이 실제보다 많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규정을 사례별로 풀어본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아리송할 때가 많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특히 그렇다. 아이들의 교육비를 누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가 되는지, 본인이 지불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어느 쪽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하다. 공제 신청 노하우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니 허투루 넘길 수도 없다. 공제액이 실제보다 많으면 후에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무조건 많이 신청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보자.

Q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노하우가 있다는데

A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부양가족에는 자녀는 물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이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몰아주면 효과가 더 크다. 다자녀인 경우 배우자 한쪽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각기 자녀를 나눠 신청하면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적공제가 아닌 특별공제의 경우엔 사정이 좀 다르다.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처럼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되기 때문이다.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가 아니라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보험료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근로자가 납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아닌 자녀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양가족인 아들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납부했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 얼마나 되나

A 입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자녀의 입학금을 올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을 수 없다'.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입학금을 납부했더라도 아직은 대학생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내년에 신청하면 된다. 장학금을 받은 경우엔 장학금 외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원비도 받을 수 없다. 학원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면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는 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았거나 지로 납부를 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공제대상이다. 조건은 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처남과 처제 등 배우자의 형제도 공제 대상이다. 직계존속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대학원 수업료 전액이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대학원 수업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Q 의료비 소득공제 어디까지 되나

A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보장하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의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았다 해도 보험금에 상당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자녀가 지불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남의 부양가족인 부친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불한 경우 장남과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에 포함된다. 안경,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이 대표적이다. 안경의 경우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된다.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간병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내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비속, 직계존속(외가 포함),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배우자의 가족 포함)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 가능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인만 가능)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가능, 부부가 각각 1인씩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다자녀 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소득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교육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기부금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가능

자료 국세청

Q 부양가족 공제 더 받을 수 있나

A 부모님은 물론 부양가족 대상이다. 하지만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부모도 부양가족 대상이다. 연간소득 1백만원 이하, 60세 이상이면 된다.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공제액은 더 늘어난다.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의 경로우대 대상이라도 추가 공제를 받는다.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 대상이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은 1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사용액과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므로 꼼꼼하게 챙겨둬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G

글·변형주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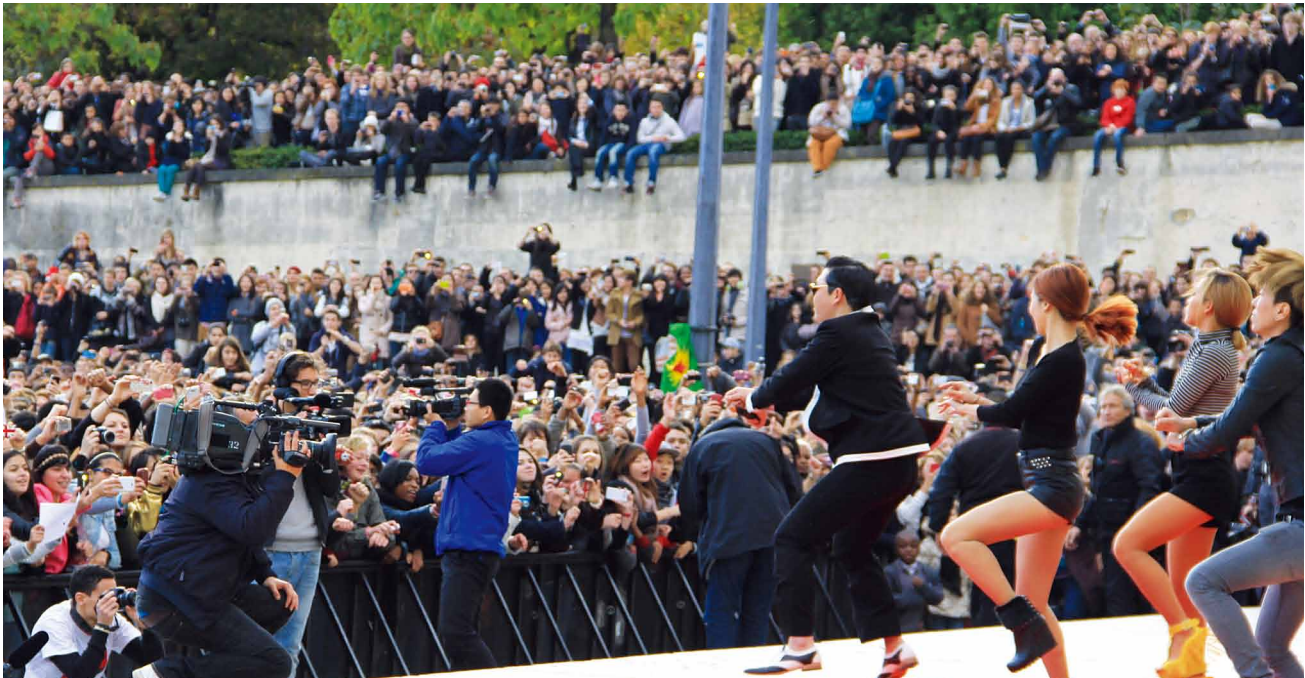
기획특집

경제에 문화를 더하라 시대의 화두가 바뀐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5위를 달성하더니 '소녀시대' '동방신기'를 위시한 아이돌 그룹이 K팝 열풍을 몰고 왔다.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31개국에 수출됐다. 김기덕 감독은 베니스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거머쥐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신드롬은 꺼질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올해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이 1천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문화예술 · 체육계에 들려온 낭보는 한민족의 신명이 세계와 '통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K POP MOVIE BOOK SPORTS

일러스트 · 박상훈

조선DB

지난 11월 5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싸이가 청중 2만여 명과 함께 강남스타일을 부르며 말춤을 추고 있다. K팝, 한식, 한국 드라마 등은 이제 전 세계인이 함께 향유하는 문화상품으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날로 확장되고 있다.

K컬처 구현… 세계와 문화를 즐긴다

K팝 등 한류물결의 확산에 정부의 체계적 문화정책 뒷받침

'강남스타일'을 들으며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는 '비빔밥'을 먹는다. 퇴근 후에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한국 드라마를 본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일본 어느 나라의 풍경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5년간 한국 문화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문화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인과 문화를 함께 주고받는 나라로 발전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문화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 '음악 좀 듣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일단 빌보드 차트 순위부터 외고 다녔다. 한국 영화관에는 미국 영화나 홍콩 영화가 관객몰이를 하며 상영되고 있었다. 세계문학전집에 한국 작가의 이름이 없는 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2012년 현재 한국 문화의 위상은 그때와는 전혀 다르다. 특히 지난 5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괄목상대'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다.

'강남스타일 신드롬'이 단적인 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7주 연속 2위를 차지했다. '소녀시대', '동방신기' 등 아이돌 그룹이 이끈 K팝 붐은 몇 년째 아시아를 휩쓸고 있다.

한국 영화의 발전도 눈부시다. 한국 영화는 이제 세계 영화의 중심부에 당당히 진입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 한국 영화가 상영되면서 한국 영화 마니아층도 생겼다.

문화예술 · 스포츠 · 콘텐츠 · 관광 등 큰 성과

올해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1천만 관객을 극장으로 부른 영화가 일곱 편이나 탄생하는 등 내수 시장도 탄탄하게 성장했고 부산국제영화제는 내실 있는 국제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문학에서도 한국인의 활약이 눈부시다. 미국 문학계에 분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바람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고 여겨졌던 '엄마' 코드가 세계인에게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황석영, 김훈 등 한국 작가들의 작품은 이제 외국 출판사에서 내는 세계문학전집에 당당히 포함되어 있다.

한국이 이렇듯 '문화강국'의 위치로 오른 데에는 정부의 체계적인 문화 지원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정부는 문화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문화예술·스포츠·콘텐츠·관광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한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왔다.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난 6일에는 민요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또한 국제문화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문화교류의 거점인 재외 한국문화원을 늘리고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노력도 병행

스포츠를 통한 국격 향상도 빼놓을 수 없다. 2011년에는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성공했다.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이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2 런던하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눈부신 성과를 일궈냈다.

문화적 품격과 정체성을 제고해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세워 방문하는 이는 누구나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박물관은 12월 26일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도 강화했다. 국외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 환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방화로 인해 소실된 숭례문 복구도 진행 중이다. 숭례문 방화를 계기로 문화재 방재시스템도 구축했다.

세계 43여 개국에 위치한 90여 곳의 세종학당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한글과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한국 문화의 정수 중 하나인 '한글'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해 한국학 연구 지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했다.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문화바우처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 향유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잇다. 미래세대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도 강화했다. 지난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열었다. 일상에서 생활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1인 2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예술행사 관람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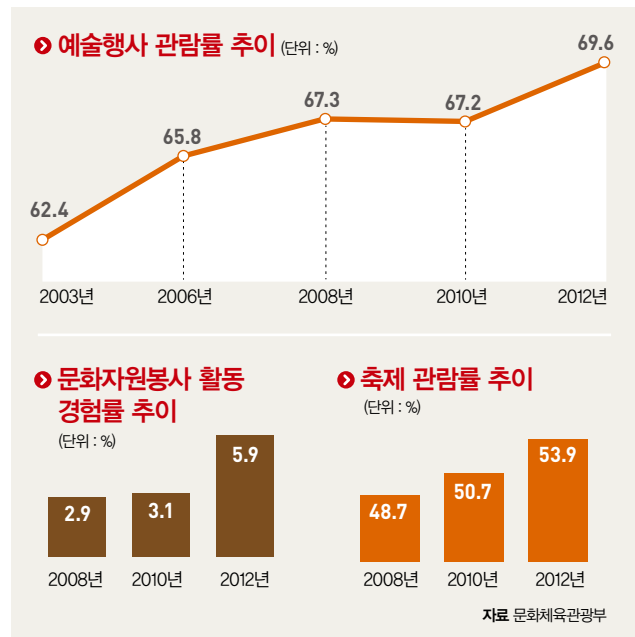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62.4	65.8	67.3	67.2	69.6

문화자원봉사 활동 경험률 추이 (단위 : %)

2008년	2010년	2012년
2.9	3.1	5.9

축제 관람률 추이 (단위 : %)

2008년	2010년	2012년
48.7	50.7	53.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강국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구축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예술창작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작·유통·해외진출 단계별 예술창작 지원시스템을 정립했다.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정책도 수립·운용하고 있다.

올해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이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인구와 국토 규모를 감안하면 세계 10위권의 관광대국으로 올라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과 함께 관광선진화 초석 마련을 위해 시행한 다양한 정책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광경쟁력 강화위한 '공정관광' 조성 정책 펼쳐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공정관광'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을 폈다. 차세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관광, 크루즈 관광 등의 운용 기반을 정비했다. 국제회의전시(MICE)산업과 녹색관광 진흥정책도 관광 선진화를 위해 큰 역할을 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녹색관광 육성정책의 예로는 새만금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4대강살리기와 그 맥을 같이하는 '강변 문화관광'은 관광의 새로운 조류를 연 관광이다. 강변 문화관광이 자리 잡으면서, 친수생활 레저스포츠가 확산되고 강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의 물꼬가 트였다. G

글·하주희 기자

기차역 기능을 상실한 구 서울역사가 '문화역 서울 284'로 새로 탄생해 근대사를 대표하는 역사적 공간이자 문화 전파의 허브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 대한민국' 정체성이 살아났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국가대표 공간' 획기적 확장…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도

지난 5년간 문화는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고난의 역사를 극복하고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문화재들도 속속 돌아오고 있다. 또 우리의 유형·무형 문화유산들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에 등재됨으로써 문화 대한민국의 품격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역사는 오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개항기 이후 고난의 역사를 딛고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급성장한 대한민국.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여주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12월 26일 문을 연다.

국내 최초의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98번지에 있던 옛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부지 6천4백45평방미터, 건축 총면적 1만7백34평방미터로, 지상 8층 건물에 4개의 상설전시실과 2개의 기획전시실, 수장고, 세미나실, 카페, 옥상 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IT)과 문화기술(CT)을 활용하여 설계된 전시공간에는 개항기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분야를 살펴볼 수 있는 관련유물 1천5백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은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돼왔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2월 26일 개관

일련의 '국가대표 문화공간'으로 꼽을 수 있는 백성희·장민호극장(2010년 12월), 문화역 서울 284(2011년 8월), 대한민국 예술인센터(2011년 10월) 등이 완공돼 문을 열었다. 현재 건립 중인 국립서울미술관(2013년 2월 완공 예정), 한글박물관(2014년 완공 예정) 등도 우리 국민에게 자긍심을 불어넣는 국가대표 문화공간들이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 상징적 공간으로 지난 10월 18일 우리 정부가 매입한 워싱턴 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도 빼놓을 수 없다. 매입 당시 미국인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1891년 조선왕조(고종)가 2만5천달러에 매입했으나, 일제가 1910년 6월 강압적으로 단돈 5달러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던 곳이다. 이번 매입으로 우리 정부는 1백2년 만에 다시 소유권을 되찾았다.

역사적 공간뿐 아니라 오랫동안 국외에 있다 귀환한 외규장각 도서와 조선왕조도서는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과 함께 국외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주었다.

외규장각 도서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된 2백97책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 G20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2010년 11월 12일 정상회담을 갖고 반환에 합의, 2011년 4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외규장각도서 귀환이 완료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5년새 15건 등재

조선총독부 반출 조선왕조 도서 1천2백5책도 1백여 년 만에 귀환했다. 민간에서 시작된 일본 궁내성 보관 조선왕조도서 반환은 2011년 6월 10일 '도서에 관한 한-일 협정'이 발효되고, 2011년 10월 19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부 도서(《대례의궤》 등 5책)의 반환이 결정됨에 따라 총 1천2백5책의 반환이 결정됐다. 2011년 12월 환수를 완료한 조선왕실 도서는 12월 27일부터 2012년 2월 2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시회를 통해 국민 앞에 선보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도서환수 성과를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범국가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지난 2월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지난 7월 문화재청 산하 특별법인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했다.

국가대표급 문화공간 조성, 국외 문화재의 귀환이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찾아가는 길이었다면, 지난 12월 6일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우리의 문화유산이 잇따라 유네스코의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으로 등재된 사례들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지평을 세계무대로 확장해주었다.

특히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이상 2008년)부터 시작해 강강술래, 남사당 놀이, 영산재, 처용무,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상 2009년)과 가곡, 대목장, 매사냥술(이상 2010년), 그리고 줄타기, 택견, 한산 모시 짜기(이상 2011년)에 이어 최근의 아리랑까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된 15건은 모두 지난 5년 사이에 등재됐다.

지난 11월 8일 행정안전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한글날(10월 9일)이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게 됐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최고 문화유산인 한글의 중요성에 걸맞은 조치로 환영받았다.

12월 26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식 개관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다. 공식 개관에 앞서 12월 21~24일 국민들에게 사전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다. 일반 관람은 12월 27일부터다.

한글날 재지정의 의미가 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는 것 이상이란 사실을 아는 국민이라면 새로 개관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의미도 함께 되새겨볼 만하지 않을까. G

글·박경아 기자

연도별 국외문화재 환수 성과 (단위 : 점)

기간	환수 성과
1950~1960년대	1,443
1970~1980년대	1,302
1990~1998년	1,143
1999~2002년	1,112
2003~2007년	2,157
2008~2011년	2,58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조성된 서울의 문화공간

박물관명	개관 시기	위치	의미	연락처
백성희·장민호극장	2010년 12월	용산구 서계동	기무사 수송대 부지를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	☎02-3279-2233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2011년 10월	양천구 목동	예술인들의 화합과 교류 중심 역할	☎02-2655-3115
문화역 서울 284	2011년 8월	중구 통일로	기차역 기능이 소멸된 구 서울역사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	☎02-3407-3500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2012년 12월	종로구 세종대로	최초의 대한민국 근현대사 역사관	☎02-3703-9200
국립서울 미술관	2013년 2월 완공 예정	종로구 삼청로	기무사 부지에 조성되는 국가대표급 미술공간	
한글박물관	2014년 완공 예정	용산구 용산동6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 확산을 위한 공간	

'made in K컬처' 세계로 세계로

한국문화콘텐츠, 아시아를 넘어 미국·유럽으로… '한국 배우기' 열기

한글, 한식, 음악, 드라마, 영화 등 우리 고유의 문화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아시아에 머물던 한류의 인기를 미국과 유럽 등으로 확장시킨 계기가 됐다. 그 결과 요즘 한국을 배우겠다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우리 문화콘텐츠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 한류는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에 한정돼왔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한 K팝이 한류의 기둥 역할을 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K팝의 인기는 한류를 다른 분야와 장르로 확대하는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과 국가브랜드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세계 각국과 문화교류 환경을 조성해온 정부의 노력도 컸다.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공동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등 합동 작업을 통해 반한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도 한류 확산에 도움이 됐다. 한편으론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의 IT경쟁력이 한류 확산의 기반을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

K팝에 이어 한국영화도 명성 떨쳐

음악계는 아시아송페스티벌의 브랜드화를 통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한국 음악방송은 현재 해외 40개국 이상에 송출되고 있으며 지난해 음악 관련 페스티벌에 참여한 해외 관광객은 총 3만1천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DB

한류는 동남아시아라는 제한된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최근 한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브라질에서 한국 음식을 배우려는 현지인들이 요리강좌를 가득 메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1년 11월 구글과 한국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적인 디지털미디어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한류 콘텐츠 확산에 앞장서 왔다. SNS와 해외 미디어를 통해 K팝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한류로의 전환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병헌 등이 주연을 맡은 한류드라마는 동남아 국가에서 황금시간대에 방영되고 있고 한국인이 쓴 책도 세계 각국에서 번역서로 팔리고 있다.

한류를 타고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해 수출을 증대하는 효과도 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는 2010년부터 한류상품박람회를 개최해 한류스타의 상품 및 의료·e-러닝 등 관련 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72개 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해 3백명 이상의 해외 바이어가 수출상담을 하고 돌아갔다.

한류가 이른바 K컬처로 확산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주도의 한류문화진흥단을 올해 초 발족하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증진해왔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되면서 토종 캐릭터인 '뽀로로'가 해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국내 전자업체가 만든 스마트폰, TV 등은 해외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K팝의 해외 공연을 관람한 외국인들은 이를 계기로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한류가 우리 문화의 격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해외 한국문화원도 4년새 2배로 늘어

한식 세계화도 농식품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브랜드 사업으로 정착됐다.

미국 뉴욕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식 선호도는 2009년 9퍼센트에서 지난해 31퍼센트까지 높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한식 세계화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1년에는 미슐랭가이드가 선정한 스타급 해외 식당으로 한식당이 4곳이나 선정되기도 했다.

한식업체들의 해외 진출도 늘어 2008년 27개 업체에서 지난해 37개 업체가 해외에 지점을 개설했고 우리 농식품 수출액도 2008년 45억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77억달러 규모로 커졌다.

정부는 한류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고 있는 해외 한국문화원도 대폭 늘렸다. 2008년 9개국, 12개소에 불과했던 한국문화원은 2012년 12월 현재 20개국, 24개소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추가로 4개국에 한국문화원을 개소할 예정이다. 해외 한국문화원은 한글을 배우거나 전통악기를 체험하는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각종 문화교류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각 국가별 특색에 부합하는 한류 콘텐츠를 홍보하는 역할도 맡는다.

해외문화원와 대사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세종학당의 경우 2007년 전체 수강자 수가 4천명 선에서 지난 2012년 8월 현재 1만7천7백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G

글·김대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12월 1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서남아 최초의 한국문화원 개원식에 참석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찬드레시 쿠마리 카토크(왼쪽에서 세번째) 인도 문화부 장관 등 내빈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학당 운영현황

	학당 수	수강자 수
2007년	15	4,080
2008년	17	3,971
2009년	16	3,411
2010년	23	7,765
2011년	60	13,213
2012년 8월	90	17,728

뉴욕 현지인의 한식선호도

2009년 9% → 2011년 31%

한식세계화 가능성에 대한 국민인식

2009년 70% → 2010년 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바우처의 힘… 문화엔 소외계층 없다

한국인 문화유전자에 정책 맞춰… 2백9만명에 '문화의 향기' 전달

한국국학진흥원은 지난 10월 '한국문화유전자포럼'에서 '2012년에 주목해야 할 10대 한국문화유전자'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진흥원은 역동, 끈기, 예의, 해학, 곰삭음, 흥(신명), 어울림, 정(나눔), 자연스러움, 우리(공동체) 등 10가지를 한국의 문화유전자로 선정했다. 그만큼 한국인에게는 문화적 욕구가 충만해 있다. 최근 자발적으로 또는 정부의 도움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정은주 기자

지난해 문화바우처 공익광고 주인공으로 출연한 김애순씨와 아들 서요한군. 김애순씨는 "문화바우처 카드 혜택을 받으면서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10대 한국문화유전자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흥, 어울림, 그리고 정(情)이다. 이상민 가톨릭대학교 ELP학부대학 교수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열풍을 '흥'의 문화유전자로 해석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에는 듣는 재미, 보는 재미, 함께하는 재미가 모두 녹아 있다"는 시각이다.

'어울림'에 대해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마치 비빔밥처럼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것들이 한데 모여 한판, 한마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어울림은 한민족의 오랜 미학적 윤리로서, 최근 다문화 시대를 맞아 새롭게 되새겨야 할 한국적 문화유전자"라고 강조했다.

송원창 한양대 수행인문학부 교수는 "정에는 고운 정뿐만 아니라 미운 정도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정이 강자에 대한 변명으로 이용되지 않고 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용될 때, 한국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국형 엘시스테마'… 청소년에 꿈과 희망

정부의 문화정책은 이 같은 한국 특유의 문화유전자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공연관람, 전시회 입장, 도서구입 등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0대 한국문화유전자의 하나인 '어울림'을 현실에 적용한 정책이다. 2012년 기준, 문화바우처 제도의 1인당 지원 한도는 연간 5만원. 정부는 이를 위해 총 67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2011년 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해 그해 5월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그해 11월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투자재원을 제공해 민간 투·융자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8천2백44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창작재원을 확대하고, 투자지원을 다변화했으며, 1천2백36억원 규모의 글로벌콘텐츠펀드를 신규 조성해 국내 콘텐츠 업체의 제작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우리의 전통 유전자인 '흥'과 '우리'가 녹아 있는 정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년부터 시작한 '꿈의 오케스트라-엘시스테마 코리아'를 꼽을 수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엘시스테마 코리아'는 정부가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 음악과 오케스트라를 통해 꿈과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펼치는 사업. 현재 19개 지역 거점기관 및 4개 국악원을 중심으로 1천여 명의 아동, 청소년이 이를 통해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고 있다.

예술인복지법 제정… 맞춤형 복지 추구

정부는 2012년 2월 베네수엘라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발전시킨 엘시스테마의 철학과 교수법을 민간 오케스트라에 전파하기 위한 마스터 클래스, 교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2012년 한국형 엘시스테마'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공연을 개최했다. 이 공연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국립국악원이 지난 4개월간 전국에서 실시한 '2012년 꿈의 오케스트라-한국형 엘시스테마 활성화' 사업의 성과 발표회로서, 전국 1백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이 공연에는 국립민속국악원 '어린이 창극단'의 단막창극 〈시리렁 시리렁 톱질이야~〉를 시작으로 국립국악원 '꿈나무 합주단'의 〈북천이 맑다거늘〉, 〈삼도설장고가락〉, 남도국악원 '어린이 북놀이단'의 〈진도북춤〉, 부산국악원 '가남초등학교 풍물단'의 〈부산농악〉 모두 4팀이 참가했다.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음악교육으로 공감능력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으며, 특히 공연을 통해서 목표의식과 성취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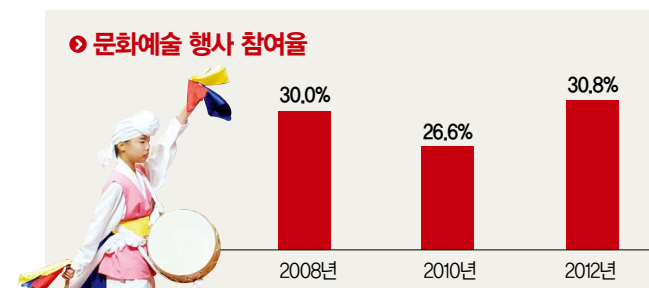
정부가 '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며 2011년 10월 28일 제정한 예술인복지법은 한국의 문화유전자인 '정(나눔)'을 정책으로 표출한 것이다.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근거 등을 바탕으로,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술인복지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향유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적, 지역적 및 사회적 제약 등에 따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전시·문학·창작 등 문화예술 분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향유권 지원대상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수혜자 수와 만족도를 증가시켜 문화복지 정책의 체감도·실효성을 증대해 왔다.

이 같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혜자는 2011년 기준 문화바우처 1백18만명, 여행바우처 4만명, 스포츠바우처 3만6천명, 소외계층 문화순회 42만7천명, 사랑티켓 47만명, 장애인 창작지원 2만5천명, 문화체험 프로그램 공연 관람 38만6천명 등 총 2백9만4천명에 이른다.

글·이범진 기자

문화예술 행사 참여율

연도	참여율
2008년	30.0%
2010년	26.6%
2012년	30.8%

주요 문화향유권 제고 사업

사업명	2012년도 예산	지원대상	2011년도 사업성과
문화바우처	347억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혜인원 118만명
여행바우처	66억원		수혜인원 4만명
스포츠바우처	123.1억원		수혜인원 3.6만명
소외계층 문화순회	80억원	시설 및 지역 소외계층	수혜인원 42.7만명 공연횟수 1,964회
사랑티켓	24억원	청소년, 어르신	수혜인원 47만명(3,146개 작품)
문학나눔	38.5억원	복지 및 교정시설	보급권수 47.8만권
장애인 창작지원	10억원	장애인 예술단체	49개 단체(예술인) 지원 수혜인원 2만 5천명
문화체험 프로그램	48억원	지방문예회관	수혜인원 38.6만명 공연횟수 774회(59개 기관)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적

구분	지원학교	참여학생	예술강사
2008년	3,689개교	58만명	2,243명
2009년	4,799개교	155만명	3,483명
2010년	5,436개교	174만명	4,156명
2011년	5,772개교	176만명	4,164명

※ 2011년 전체 초·중·고(11,342개교) 대비 51%(5,772개교), 초·중·고생(747만명) 대비 24%(176만명)

조선DB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은 음악과 미술 활동 중 한 가지, 체육 활동 중 한 가지 등 총 두 가지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들이 체력과 감성, 지성, 덕성을 조화롭게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1인 2기 활동이다. 음악 활동으로 해금 강좌를 택한 학생들이 해금을 연주하고 있다.

"스트레스 관리로 학생들 정서에 도움"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등학교, 전교생 체육과 음악·미술 활동 성공 운영

'1인 2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1인 2기 운동은 국민 모두가 음악·미술·무용 등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 한 가지, 스포츠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자고 장려하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서울 은평구의 하나고등학교는 1인 2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하나고의 실험은 성공한 것일까. 서울지역에서 유일한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고로 2010년 출범 당시부터 주목을 받은 하나고가 첫 입시에서 고3 재학생 절반을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보내는 데 성공했다. 지난 12월 8일 발표된 수시 최초 합격자로만 헤아려본 결과다. 추가 합격과 정시모집이 완료되면 주요 대학 진학 비율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

11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하나고등학교를 찾았다. 학교는 북한산 기슭에 위치해 있다. 학교 부근엔 이렇다 할 건물이 없다. 교문 앞에 분식집이 없는 몇 안 되는 학교 중 하나일 것이다.

방학을 코앞에 두고 막바지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내의 공기 속에는 정적과 함께 조용한 설렘이 섞여 있는 듯했다. 학교 로비에는 학생들의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사진, 서예, 서양화뿐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 판화 등 종류가 다양하다.

"정서 안정돼 면접에서도 떨리지 않아요"

하나고 학생들은 한 가지 이상의 체육 활동과 한 가지 이상의 음악·미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바로 '1인 2기' 프로그램이다. 월, 화, 목, 금요일 오후 4시20분부터 5시50분까지 1인 2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월·금반'과 '화·목반'에 개설되어 있는 체육과 음악·미술 프로그램들 중 각 1개씩을 선택해 참여한다. 예를 들면 '월·금반'에 개설된 보컬앙상블 수업과 '화·목반'에 개설된 농구 수업에 참여하는 식이다. 개교 당시부터 운영해온 프로그램이다.

한 시간이 아쉬운 고등학생들이다 보니 처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진학이 결정된 3학년 박선영양의 설명이다.

"처음에는 신청만 해놓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후 자습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니 어느 순간 다들 체육 수업이나 음악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제 경우는 체육으로 요가와 필라테스를 선택해 들었는데 건강 유지에 도움이 컸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됐고요.

정은주 기자

1인 2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전시회가 12월 7일부터 하나고 본관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국민 대다수 "만족스런 여가활동 하고 싶다"

하나고 창의인성실의 이동훈 교사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했다. 창의인성실은 학생들의 1인 2기 활동 및 인턴십,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다.

"일반고등학교의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예민해져서 스트레스 받고 경쟁이 표출되어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고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더라고요. 3학년이 돼도 1학년처럼 여유 있고 면접에서 잘 떨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음악이나 체육 활동으로 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1인 2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및 기관이 하나고 외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부터 '1인 2기'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0년에 시행한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여가시간에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36.2퍼센트가 여가시간에 TV 시청, 산책, 낮잠 등 휴식을 한다고 답했다.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2퍼센트였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9.5퍼센트였다. 학생들은 주5일제 수업으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사교육에 참여하거나 게임 등 인터넷을 하는 데 할애하고 있었다.

비록 활동적으로 여가를 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의 활동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이 만족스러운 여가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로 꼽은 것은 '시간 부족'과 '경제적 부담'이었다. 바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 1인 2기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G 글·하주희 기자

하나고등학교 김진성 교장 인터뷰

"외국 명문고에선 1인 2기 과외활동은 당연"

김진성 교장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다 사퇴 후 2009년 하나고 교장에 취임했다. 취임 직후 김 교장은 서울시 모든 중학교를 돌며 교장들과 만났다고 한다. 신생고인 하나고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고에 좋은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3년전 취임 당시 한국의 '이튼 칼리지'를 만들겠다고 하셔서 화제가 됐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전인적인 학생을 키우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튼 칼리지처럼 되기에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모자라지요. 또 우리 입시 제도 하에서 그런 교육시스템을 유지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이튼 칼리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고의 목표입니다.

1인 2기를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우리 입시 제도 하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인식 같은 것이죠. 학부모들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이런 인식이 있어 초기에는 이의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을 깨는 것이 제일 어려웠지요. 2010년 11월에 교내 아트센터 개관식이 있었는데 이때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공연했습니다. 하나고의 오케스트라도 같은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어요. 학부모들이 이 공연을 보면서 1인 2기의 장점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기 학생들의 대학 진학 결과가 우수하게 나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대학에 갔느냐만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야 알 수 있겠지요.

내년 콘텐츠산업 매출 1백조원 '황금알'

4년간 연평균 9퍼센트씩 성장… 창작 인재 2만명 육성 계획도 수립

국내 경기 침체에도 콘텐츠산업은 해마다 큰 성장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과 국가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는 콘텐츠산업 발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11년 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어 콘텐츠산업 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국내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콘텐츠산업 진흥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세계 경제는 아직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성장은 가히 눈부시다. 콘텐츠산업은 지난 4년간 연평균 9.3퍼센트씩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2월 11일 발표한 '2011년도 기준 2012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콘텐츠산업은 매출액, 수출액, 종사자 등이 전년에 대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보다 13.2퍼센트 늘어난 82조9천6백79억원이다. 매출액은 출판을 제외한 전 산업부문에서 증가했으며, 지식정보(24.9퍼센트), 게임(18.5퍼센트) 등의 매출 규모가 특히 높았다. 콘텐츠산업의 규모별 비중을 보면 출판산업이 약 21조2천4백억원으로 가장 크며, 그다음으로 방송(약 12조7천억원), 광고(약 12조1천억원), 게임(약 8조8천억원) 산업 등이 뒤따랐다.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콘텐츠산업 진흥 노력

수출액도 전년보다 34.9퍼센트 증가한 43억2백1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콘텐츠산업의 수출은 게임(48.1퍼센트)과 캐릭터(42퍼센트) 등의 수출규모가 컸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황준석 과장은 "한류 영향으로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은 4년(2008~2011년)간 연평균 22.5퍼센트씩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고, 수입액은 전년대비 8.9퍼센트 증가한 약 18억4천7백만달러"라며 "수출입 증감차액은 24억5천4백만달러의 흑자"라고 분석했다. 콘텐츠산업 수출 흑자폭은 2010년에 비하면 약 2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콘텐츠산업 종사자는 전년보다 1.5퍼센트 증가한 60만4천7백30명으로 나타났다. 산업 규모별 비중은 출판, 게임, 음악, 지식정보, 방송, 광고, 영화, 캐릭터 등이다.

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액은 전년 대비 10.3퍼센트 증가한 약 33조4천억원으로 GDP대비 비중이 2010년의 2.58퍼센트에서 작년에는 2.7퍼센트로 0.12퍼센트 포인트 늘어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이 해마다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배경에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체계와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9월 콘텐츠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에 선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CT R&D(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확대, 금융 및 수출 지원 등과 함께 영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디지털콘텐츠 등 개별 산업의 육성을 위한 별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창작전문 인력 양성으로 미래 대비

정부는 또한 변화된 콘텐츠산업 환경에 부응하고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기 위해 2010년 '콘텐츠진흥법'을 제정하고, 관련 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웠다. 지난 8월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만화진흥에 관한법률, e스포츠 진행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콘텐츠산업과 관련한 법령을 새롭게 정비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거해 정부는 2011년 5월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기본 계획(2011~2013년)'을 발표했다. 이때 범정부 차원에서 연도별 콘텐츠산업 세부계획을 마련하였고,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국가 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제작 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를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을 위한 '5대 추진 전략'으로 삼았다. 이처럼 법규를 정비하고,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펼친 결과 올해인 2012년은 매출 88조원, 수출 45억달러, 일자리 60만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콘텐츠산업 진흥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콘텐츠산업 진흥 시행 계획에 따라 내년에 모두 3천9백61억원이 콘텐츠산업 진흥 예산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2011년부터 투입된 예산을 합하면 1조1천1백54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정부지원 정책과 민간의 노력을 통해 2013년 콘텐츠산업에서 1백조원·수출 50억 달러·일자리 62만명 달성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콘텐츠산업이 발전하면서 '뽀로로'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산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08~2011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액 (단위 : 백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0~2011년)	연평균 증감률(%) (2008~2011년)
출판	2,105	2,061	2,124	2,124	0.0	0.3
만화	72	74	74	75	1.3	1.3
음악	260	274	296	382	29.0	13.6
게임	560	658	743	880	18.5	16.2
영화	289	331	343	377	9.9	9.4
애니메이션	40	42	51	53	2.8	9.3
방송	935	988	1,118	1,275	14.1	10.9
광고	931	919	1,032	1,217	18.0	9.3
캐릭터	510	536	590	721	22.2	12.2
지식정보	478	607	724	905	24.9	23.7
콘텐츠 솔루션	189	218	236	287	21.5	15.0
매출액 합계 (부가가치액 합계)	6,367 (2,539)	6,708 (2,767)	7,332 (3,029)	8,297 (3,341)	13.2 (12.3)	9.2 (9.6)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분야다. 정부는 2017년에 이르면 약 3만7천명의 창작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으로 차세대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하기 위한 전략 과제를 수립했다. 이러한 창작인력 양성 계획은 급격한 콘텐츠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G

글·이상흔 기자

지난 8월 런던올림픽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2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3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자원봉사자들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포뮬러 원 유치

한마음 한뜻…세계 스포츠 그랜드슬램

한국은 지난 5년간 스포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틀을 다졌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고,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을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포뮬러 원(F1) 자동차 경주 대회를 정착시켰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2 런던 하계올림픽에선 종합 5위를 차지했다. 2013년 1월엔 지적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도 열린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국민 열망·정부 지원 힘입어 1차 투표서 압승

2011년 7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제123차 총회에서 평창이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 한국은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 95표 중 63표를 얻어 독일 뮌헨(25표)과 프랑스 안시(7표)를 압도적으로 물리쳤다.

한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지구촌의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 세계육상선수권, 포뮬러 원)를 모두 치르는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2주 후엔 같은 장소에서 장애인올림픽이 열린다. 동계 패럴림픽의 국내 개최도 최초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줄곧 선두를 지켰고, 1차 투표에서 승리를 결정 짓는다는 작전으로 성공을 거뒀다. 평창이 압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조양호 유치위원장,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피겨 스타 김연아, 입양아 출신 스키 스타 토비 도슨(한국명 김수철)이 경륜과 젊음을 조화시켰다. 한국은 아시아 및 세계 동계 스포츠의 확산을 뜻하는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슬로건으로 유치위원회와 정부, 대한체육회, 강원도와 민간 부문이 힘을 합쳤다. 평창의 유치 명분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 국민적 열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

친환경 흑자대회… '대구' 브랜드 세계에 알려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의 가장 큰 수확은 '대구'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2007년 3월 17일 케냐 몸바사에서 대구가 이 대회를 유치했을 때만 해도 냉소적인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대구는 친환경 녹색대회, 역대 최고 수준의 선수촌 시설, 품격 있는 전시와 공연 등으로 전 세계에 대구라는 도시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참가 규모(2백2개국)는 역대 최대였다. 입장권 판매율은 1백퍼센트(46만4천6백88석), 실제 입장객은 이의 91.7퍼센트인 44만6천3백5명이었다. 2007년 일본 오사카 대회의 판매율과 입장객 수는 49.06퍼센트(24만4천여 명), 2009년 독일 베를린의 경우는 70.3퍼센트(39만7천여 명)이었다. 대구 시민의 참여도 돋보였다. 대회 기간 중 경기장과 행사장 곳곳에서 자원봉사자 6천7백여 명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백37개 서포터스 1만7천여 명은 각국 선수들을 환영하고 응원했다.

올림픽서 스포츠 강국 면모 과시

동·하계 모두 종합 5위… 스포츠 선진국 '우뚝'

한국은 2012 런던 하계올림픽에서 금 13개, 은 8개, 동 7개로 종합 5위에 올랐다. '금메달 10개로 종합 10위'라는 당초 목표를 여유 있게 넘어섰다. 종합 순위에서 한국보다 금메달을 많이 딴 나라는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뿐이었다.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며 많은 땀을 흘린 한국 대표선수들의 힘이었다. 정부의 지원 체제 강화도 종합 5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동력 중 하나였다.

정부는 국제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11개 전략 종목을 선정, 해외 전지훈련과 외국인 코치 영입 등 훈련 지원을 강화했다. 올림픽 참가 최초로 대회 현지인 런던에 별도의 훈련 캠프를 확보해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제공했다. 메달 포상금을 인상함으로써 선수단의 사기도 높였다.

또 유럽에서 높아지는 '한류'를 확산시키고,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런던 현지에 홍보관을 운영했다.

한국은 앞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도 캐나다, 독일, 미국, 노르웨이에 이어 종합 5위를 했다. 한국은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 6개, 은 6개, 동 2개를 거뒀다. 빙상 세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딴 나라는 한국과 개최국 캐나다뿐이었다. 당시 외신은 "한국이 동계올림픽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전했다.

사회통합 촉매제가 될 스페셜올림픽

내년 평창·강릉서 열려… 정부 아낌없는 지원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가 내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강원도 평창·강릉 일원에서 열린다.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인(자폐·다운증후군·발달장애 등)들을 위한 스포츠 이벤트이다.

그동안 하계대회가 13번, 동계대회가 9번 열렸다. 아시아에선 2005년 일본(나가노·동계), 2007년 중국(상하이·하계)이 한 차례씩 개최했다.

정부는 전체 예산 3백90억원 중 30퍼센트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한다. 그동안 스페셜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에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크게 바뀌곤 했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도 한국 사회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G 글·성진혁(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외래관광객 1천만명… 관광대국 우뚝

일본·스위스·체코 넘어서… 세계시장서 '규모의 경쟁력' 갖춰

지난 11월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 수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올해 말까지 모두 1천1백30만명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래관광객 1천만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우리에게 관광 대국의 대명사로 불리는 스위스, 체코 등도 아직 1천만명의 시대를 열지 못했다. 일본도 우리보다 한 수 아래다. 관광에서도 한류가 꽃핀 것이다.

조선DB

한국은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았다. 한류, 연이은 국제회의, 스포츠 대회 유치 등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격은 관광객 수로 이어졌다. 문화관광체육부는 2020년 외래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 11월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1천만번째 외래관광객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축하를 받고 있다.

이미 1천만명을 돌파한 올해 외래관광객 수는 연말까지 꾸준히 상승해 한국은 2012년 외래관광객 수 세계 17위권(1천1백30만명)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방한(訪韓)한 외래관광객 수는 약 9백80만명으로 세계 25위였다.

외래관광객 수뿐만 아니라 외래관광객 증가율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9~2011년 3년간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12.5퍼센트로 프랑스(1퍼센트), 미국(2.9퍼센트), 중국(2.9퍼센트) 등에 비해 월등히 앞선다. OECD 주요 국가 중 우리가 단연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른 관광강국과 비교하면 대번에 알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외래관광객 1천만명은 네덜란드가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과 비슷한 숫자로, 일본(6백21만9천여 명)은 물론이고, 관광대국이라 일컫는 스위스(8백53만4천여 명)와 체코(8백77만5천여 명) 등에 비해서도 1백만명 이상 많은 숫자다. 특히 우리와 기후, 지리, 역사, 문화적 조건이 유사한 일본과는 격차가 커졌다.

'외래관광객 1천만명 돌파'라는 관광 한국의 새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1978년 최초로 1백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한 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외래관광객 2백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3년 만인 1991년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이 3백만명을 넘어섰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우리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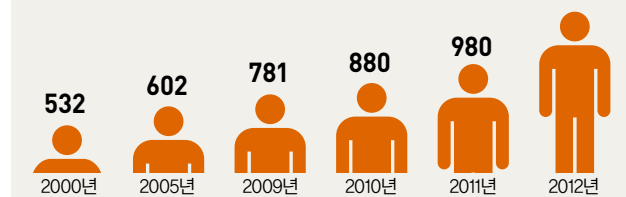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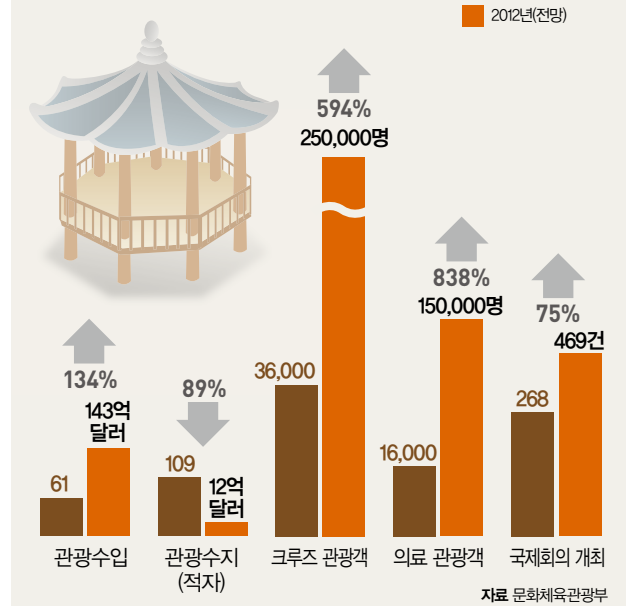
2020년 2천만명 시대 향해 새로운 출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16년 1천4백30만명, 2020년에는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난 2천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2천만명이란 수치는 지난해 기준으로 태국, 그리스, 캐나다보다 많은 숫자다. UNWTO의 전망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오는 2020년 유럽을 제치고 전 세계 관광수요의 16~17퍼센트를 점유하는 '세계최대의 관광권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따라서 8년 뒤 외래관광객 2천만명이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외래관광객 증가의 원동력은 우선 G20·핵 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격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2000년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은 2003년부터 관광부문 활성화에 가장 큰 견인차로 자리매김했다. 이 결과 2000년 최초로 5백만명을 돌파한 외래관광객 수는 6년 만인 2006년에는 6백만명, 2007년 9월에는 누적 방한 외래관광객이 1억명을 돌파했다.

민·관 협력시스템 통한 해외마케팅 큰 효과

또 2008년 이후 총 1백56건에 이르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한몫을 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비자발급 완화 정책이나 숙박업소 설립 규제완화 등을 실시했고, 한국관광공사는 일찌감치 중국 시장의 타깃별 관광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했고, 한류체험과 의료관광 등 중화권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왔다.

이 같은 효과는 중국 관광객 폭증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2010년에는 전년대비 39.7퍼센트나 증가했으며 2011년에도 18.4퍼센트가 늘었고 올해 역시 증가율이 30퍼센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중화권인 대만과 홍콩 역시 전년대비 32퍼센트와 38퍼센트가 증가했다.

외래관광객 연도별 추이 (단위 : 만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32	602	781	880	980	1130(전망치)

최근 5년간 관광산업 주요 지표 추이

구분	2007년	2012년(전망)	증감
관광수입	61	143억 달러	134%
관광수지(적자)	109	12억 달러	89%
크루즈 관광객	36,000	250,000명	594%
의료 관광객	16,000	150,000명	838%
국제회의 개최	268	469건	7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외래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를 조직해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벌인 결과다. 위원회는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부문 내 최초의 민간주도형 실행조직으로 이해관계자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과 정부, 민간과 민간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동빈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0일 '외래관광객 1천만명 유치 기념' 기자회견에서 "외래관광객 1천만명을 유치한 건 우리나라가 그만큼 해외에 많이 알려졌다는 것으로 한국 관광이 규모면에서 관광대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G

글·김남성 기자

"문화산업 수출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자"

창작과정부터 융·복합적 문화산업화 전략을 갖도록 해야

2012년 전 세계는 '한국 스타일'에 열광했다. 대중음악, 영화, 문학 각 분야에서 한국 바람이 거셌다. 문화강국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또 문화와 산업이 함께 힘을 합쳐 윈-윈하는 융·복합적 정책이 절실하다.

조선DB

지난 10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한 'K팝 스타 히스토리' 전시회를 열었다.

2012년은 한국이 '문화강국'으로 설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원년이다. 주로 외형적 성장으로 표현되는 증표는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고르게 드러났다.

우선 가수 싸이의 활약이 꼽힌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며 최단기간 누적 조회수 기록을 거푸 경신했다. 이전 아이돌 가수들이 이끌던 K팝 한류가 한차원 격상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세계적으로 임팩트는 강했고, 더욱 광범위했다. 미국 빌보드 차트 2위에 올랐다. 한국 대중가요사의 신기원이다.

영화 성적도 대중가요 못지않다. 한국영화 〈광해〉와 〈도둑들〉은 1천만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다. 한국영화 관객 1억명 시대를 여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는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세계 주요 영화제의 최고 작품상 쾌거는 한국 영화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중예술에 비해 언론의 관심이 덜한 기초예술 분야는 어떨까? 이 분야의 성장세도 무시할 수 없다. 시장 분위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매년 10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개최하는 '서울아트마켓(PAMS)'을 보자. 연극, 무용, 음악, 복합장르 등의 '상품'을 사고파는 공연예술 장터에는 올해 2백50명이 넘는 해외 바이어들이 찾았다. 이들은 공연예술 시장에서 '한국 프리미엄'을 말하기 시작했다.

국제 공연예술시장선 '한국 프리미엄' 통해

마켓을 통한 거래 성사 건수도 급증 추세다. 지난 5년간 누적 거래 성사 건수가 6백건 정도다. 서울아트마켓은 수익 창출보다 상호주의 입장에서 '문화교류(culture exchange)'가 일차 목적.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세계적인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여성 소리꾼 이자람은 좋은 예다. 이씨는 브레히트의 서사극 원리를 판소리에 접목한 〈억척가〉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인기가 치솟았다. 유럽 무대에서 호평도 받았다. '공연계의 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문화예술 중심 '한류'는 엄연히 실재하는 거대 현상이다. 덕분에 문화강국의 서막이 열린 셈이다. 본격 드라마라면 그 다음이 중요하다. 견고한 지속성을 확보하는 일이 과제인데, 그 기반을 공고히 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첫째로, 문화행정 측면에서 '정책 과잉'을 경계해야 한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문화정책도 쏟아져 나왔다. 그 영향으로 문화예술 지원제도 등이 단단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현상에 대한 대증요법식 정책이 혼란을 일으킬 때가 더러 있다. K팝 전문 공연장 건립 계획 과정에서 보여준 조급증이 그런 예가 아닐까 한다. 문화정책은 1백년은 아니더라도 10년 대계는 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 과잉은 자칫 예술 현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다. 문화강국 영국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지원 원칙을 지키고 있다. 흔히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라 하는데, 국가가 앞장서 문화예술을 지원할 때 유념할 기준이다.

그 이유는 명료하다. 아무리 국가 지원 예산이 많아지고 기획력, 홍보·마케팅, 국제교류 기술이 발달해도 문화예술 창의성의 근간은 개별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한 현장 종사자들의 몫이다. 이들의 창의성을 제도가 옭아매서는 안 된다. 시장과 현장, 정책 개입 영역을 구분짓는 지혜다.

셋째, 창작 과정에서의 융복합적인 사고와 지원이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최근 관심사도 이것. 문화와 관광 등 서로 다른 분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테면 공연장이 관광업계와 협력해 관광객을 공연장으로 끌어들이는 식이다.

한준호 기자

지난 12월 12일 서울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2012년 꿈의 오케스트라-한국형 엘 시스테마 활성화' 사업 성과 발표회에서 농악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력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특히 창작 과정에서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융·복합적인 시도가 중요하다. 긴요한 문화산업화 전략이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로버트 윌슨의 무대의상 작업에 참여하는 건 가장 기초 수준의 예일 것이다.

국가적 문화예술 마스터 플랜 필요

넷째, 문화예술 수출 진흥을 위한 국가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핀란드를 참조할 만하다. 무선전화기 '노키아' 신화를 썼던 핀란드는 최근 약 3천억원에 이르는 문화수출 진흥 예산을 확보했다.

이 진흥 프로그램에는 교육문화부는 물론 무역산업부, 외무부, 기술혁신지원청, 관광공사 등 '문화수출' 관련 부처들이 함께 참여한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한 부처 간 융·복합 협력인 것이다. 우리도 이런 큰 그림을 그릴 때가 됐다.

최근 한류가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한껏 고양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난망한 일인가 자조하던 시절이 엊그제였다. 그런 벽을 일군의 젊은 예술가들이 과감히 깨부수었다. 격세지감이다. 이런 호기를 놓치지 않는 국가적인 어젠다 설정이 절실하다.

글 · 정재왈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한준호 기자

유네스코 본부 회의장에서 아리랑을 불러 박수갈채를 받은 이춘희 감독은 "한국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될 가치를 지닌 국악 장르가 많다"고 말했다.

파리 유네스코 본부서 아리랑 부른 국립국악원 이춘희 예술감독

"우리 가락 네번째로 민요 등재돼 행복"

지난 12월 6일 새벽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네스코는 아리랑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종묘제례,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 모두 15개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유네스코 본부 회의장에서 아리랑을 불러 찬사를 받은 국립국악원 이춘희 예술감독을 만나 당시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를 들어봤다.

"소리(노래)가 끝나고 나서 함께 온 문화재청 직원들이 눈물 흘리는 게 보였어요. 회의석상에 있던 외국 사람들은 아리랑을 듣고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아리랑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국립국악원 이춘희(65) 예술감독은 지난 12월 6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회의장에서 아리랑을 열창할 때 느꼈던 긴장감과 감동을 쉽게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6일 새벽 유네스코는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신청한 아리랑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키로 결정했다.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청 등으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은 최종 결정에 앞서 미리 준비한 노래 '아리랑'을 명창 이춘희 감독의 목소리로 현장에서 들려줬다.

이 감독은 유네스코 알리산드라 쿠민스 의장석 바로 앞 좁은 통로에 섰다. 심금을 울리는 명창의 노랫가락이 회의장에 퍼지는 순간, 엄숙하고 무거웠던 장내 분위기는 평온하고 부드럽게 바뀌었다. 5분여 동안 이어진 즉석 공연이 끝나자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정부 관계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솔직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공연장도 아닌 회의장에서 음향시설도 없이 아리랑을 불러야 한다는 게 생뚱맞기까지 했거든요. 게다가 각국 대표들이 모여 유네스코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엄숙한 분위기도 부담이었습니다. 심지어 등재에 실패한 국가 관계자들은 울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 나가 의장석 앞 좁은 통로에 섰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노래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립국악원

지난해 9월 10일 이춘희 명창이 국립국악원 우면당 무대에서 경기민요(노들강변, 도라지타령, 풍년가, 방아타령 등)를 부르고 있다.

"아리랑 들은 외국인이 '이런 기분 처음'이라고 말해"

이날 유네스코 본부 회의장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일정은 사전에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자국이 보유한 무형문화재를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모인 공식석상이었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었다. 이틀간 진행되는 전체 일정 가운데 아리랑은 첫날 마지막 심사대상(27번째)에 올라 있었다.

한국 일행은 앞서 진행되는 심사를 지켜보며 하루 종일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심사는 12시간을 훌쩍 넘겨 밤 9시50분까지 이어졌다.

밤 10시 드디어 아리랑에 대한 등재여부가 결정되는 차례가 왔다. 이 감독은 아리랑을 부를 수 있기를 고대하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회의장에 들어설 때 의장과 심사위원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 아리랑 심사를 내일로 연기하자는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더군요. 우리 일행이 종이에 'KOREA'라고 써서 의장에게 보여주며 한국 차례라는 걸 알렸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5분을 추가로 주더군요. 문화재청과 외교부 직원분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중국이 아리랑을 자국의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고 나서 발빠르게 추진됐다. 중국은 최근 자국의 문화재를 소개하는 책자에 국가급 문화유산 혹은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아리랑을 부각시키며 고유 문화인 양 기술했다. 급기야 지난 5월 중국 문화부는 '조선족의 아리랑'을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위기의식을 느낀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유네스코에 아리랑을 인류무형문화유산 후보로 신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계속 한국이 아리랑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걸 반대하며 딴죽을 걸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진행된 심사 과정에서도 중국은 유일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중국 측 심사 과정서 이의 제기해 한때 긴장

"아리랑 심사 과정에서 중국이 홀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순간 긴장했어요. 아리랑이 우리 것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덩치가 큰 중국이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거죠. 다행히도 서류심사 때 아리랑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끝낸 의장이 직권으로 중국의 억측을 제어했습니다."

이 감독은 우리 국악 가운데 유네스코에 등재될 가치를 지닌 콘텐츠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경기민요 중 12좌창이 있는데 대중화될 수 있다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가치가 충분해요.

이 밖에도 우리 문화 중에는 유네스코에서 탐낼 만한 국악 장르가 많습니다. 이번에 느낀 것이지만 우리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오랜기간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합니다."

글·김대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경련 재난공보담당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 될게요”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공공 정보는 혼란을 막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재난공보담당관(PIO)들이 재난 정보와 대응 방법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도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재난공보담당관 제도가 도입됐다. 국내 첫 재난공보담당관으로 발탁된 박경련씨를 만나봤다.

한준호 기자

우리나라의 첫 재난공보담당관으로 아나운서 경력 8년차인 박경련씨가 채용됐다. 박 담당관은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여 국민과 정부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제가 나서서 재난 관련 정보와 행동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난이 닥치면 직접 재난을 당한 분들도 힘들지만,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불안해하잖아요. 이러한 때 국가가 정확한 재난 관련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전하면 많은 분이 한결 안심할 것이라 생각해요.”

지난 12월 초 국내 첫 재난공보담당관으로 선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박경련(34)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재난관련 정보가 나를 통해 전해진다는 생각에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각종 재난재해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방송 아나운서 경력 8년… 새로운 도전 설레

소방방재청 소속인 박 담당관은 소방·방재·안전·민방위 등 다양한 재난대응상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계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면 각 언론사에 신속하고 정확한 브리핑과 인터뷰를 제공해 국민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 담당관의 설명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생명입니다. 언론과 인터넷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쏟아내면 자칫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행동하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회 혼란도 커질 테고요.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발표하는 정보를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재난공보담당관(PIO·Public Information Officer)의 역할은 다양하다. 미국의 재난공보관은 재난이 발생하면 대중매체나 공공이 제기하는 재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또한 재난공보관은 공공에 알려야 할 재난관련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공공이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도 재난에 관련된 오해나 잘못된 정보를 감지하고, 고치는 역할과 새로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상 대중매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역할뿐 아니라 미국의 재난공보관은 재난 종합정보체계를 통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난 정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일도 맡고 있다.

“국민과 정부 간에 신뢰의 창구 되고파”

국내의 재난공보담당관도 재난 발생 시 재난 공보 및 경보, 소문에 대한 감시와 대응,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와 관계유지, 정확한 최신 정보수집과 확인·조율·전파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재난공보관을 발탁하기 위해 방송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했고, 최종적으로 박경련 담당관을 채용한 것이다.

아나운서 8년 경력의 박 담당관은 TBS(교통방송) 재직 시 뉴스와 교양방송 등 다양한 방송 진행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박 담당관은 “교통방송 특성상 폭설이나 기상관련 소식을 많이 전했는데 재난의 많은 부분이 기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제 기상관련 재난 소식을 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예전부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교통방송을 하면서 나름대로 교통안전 방송을 통해 안전사회 구현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지요. 이제는 재난으로부터 온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맡아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국민이 편안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담당관은 소방방재청의 자체 재난방송국인 ‘국민안전방송(NEMA TV)’의 메인 앵커로 활동할 예정이다. NEMA TV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방송이다. 박 담당관은 “지난 9월 새롭게 단장된 NEMA TV의 메인 앵커를 맡아 기쁘다”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울 게 많습니다. 재난 범위도 매번 다르고, 재난 상황도 다양합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해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끊임없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재난과 관련해서 제가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정보를 쉽게 재가공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재난 전문가로 거듭나 국민과 정부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글·이상흔 기자

소방방재청 ‘재난 알리미 앱’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재난 공포에서 해방”

소방방재청은 스마트폰에서 재난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국가재난안전센터 앱’을 업그레이드하여 ‘재난 알리미 앱’으로 출시, 지난 12월 3일부터 서비스를 하고있다.

이 앱은 기존에 지역을 이동할 때 수신지역을 변경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동 중에도 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기지국 위치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님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난 정보도 수신하도록 수신지역을 추가할 수도 있다. 또한 수신한 재난 정보를 문자메시지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전파할 수도 있다.

재난 알리미 앱은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는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Play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12월 중에는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소방방재청 여희광 기획조정관은 “스마트폰 가입자는 이 앱을 설치하면 재난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겨울 한파, 폭설, 정전 등에 대비하여 이 앱을 설치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 스스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난 알리미 앱 주요 서비스는 ▲재난 정보 (문자)수신 ▲재난 정보 SNS 등 전파 ▲국민행동요령(동영상 61편, 텍스트) 조회 ▲시설물 정보 조회(민방위 대피소, 이재민 수용시설, 소방서 등) ▲지자체 재난관리용 CCTV 조회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 등 6종에 이른다.

'미래의 에디슨' 발명인재들이 모였다

2012 대학창의발명대회서 3천30건 출품… 38개팀 수상의 영예

지난 12월 6일 '2012 대학창의발명대회'의 수상작품에 대한 전시회 및 시상식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대학생의 특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발명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1백15개 대학에서 3천30건의 발명품이 출품돼 총 38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미래의 에디슨을 꿈꾸는 이들의 연구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2 대학창의발명대회 대상엔 인하대학교 이호영·이재호·선호영 팀(팀명 리듬파워)이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상에는 연세대학교 김정빈·강홍선·백경영 팀이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리듬파워팀원 이재호씨와 WIPO특별상을 받은 연세대팀 김정빈씨와 인터뷰를 가졌다.

대상 인하대 이재호씨

"휴대전화 액정보호필름 기포 걱정 없앴어요"

"이제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휴대전화의 액정화면에 보호필름을 붙일 수 있어요." 리듬파워의 일원인 이재호(27)씨가 웃으며 말했다.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화면보호필름 구조체'를 발명해 대상을 받은 리듬파워팀은 일상생활 속의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팀원 이재호씨는 인하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지난해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나갈 기회를 얻은 이씨는 스마트폰 결제 특허분야의 주제를 맡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야 했다. 그러던 중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스마트 기기의 액정화면에 보호필름을 붙이는 게 무척 번거로웠던 것이다. 휴대전화 화면 가장자리에 투명필름을 붙일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이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른 쪽 가장자리와 상당한 차이가 나, 보기 싫게 삐뚤어진 것이다.

그뿐만 아니었다. 까딱 잘못 붙이기라도 하면 기포, 먼지, 지문이 묻어나 미관상 좋지 않았다. 대상 작품의 아이디어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발상은 좋았지만 대회를 치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심사과정에서 무려 아홉 차례나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발명진흥회

2012 대학창의발명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인하대 리듬파워팀의 이재호씨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화면보호필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씨는 발명연구부문에서 '화면보호필름' 아이디어와 함께 다른 4개의 아이디어를 동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5개 아이디어 모두 1차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분야인 발명특허부문에 다시 응모, 4개는 탈락됐지만 '화면보호필름' 아이디어만 통과됐고 대상까지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이 발명품은 기존의 보호필름이 가지고 있던 기포 발생, 재사용 불가 등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다. 먼저 충전잭 포트에 고정장치를 끼운다. 보호필름 양쪽에 붙어있는 상·하부 이형지(실리콘을 양면에 도공한 투명한 종이) 중, 하부 이형지를 떼어낸 다음 하단부터 상단으로 눌러서 부착한다. 그러고 나서는 상단 이형지를 떼어내면 된다.

스마트 기기의 가장자리 부위를 고정한 상태에서 보호필름을 부착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정위치에 부착할 수 있다. 게다가 기포, 먼지, 지문자국의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씨는 요즘 창업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인하대 창업지원단과 JST 벤처창업센터, 특허청·한림공학원 산하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모임 YIPL' 의 도움을 받아 내년 하반기에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특별상을 받은 연세대팀의 김정빈씨가 물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문어발형 구명환'에 대한 제품 설명을 하고 있다.

특별상 연세대 김정빈씨

"물놀이 사고 막을 '문어발형 구명환' 출품"

이번 대회의 WIPO특별상은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정빈, 강홍성, 백경영씨의 발명품 '문어발형 구명환'이 수상했다. 팀장인 김정빈(26)씨의 고향은 부산이다. 해수욕장 근처에 살았던 그는 여름철마다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웠다.

구조요원들이 연장근무까지 하며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그것 역시 한계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것이 이번 아이디어의 시초였다. 세 사람은 똘똘 뭉쳐 해수욕장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물에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발명품 만들기에 돌입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현실에 옮기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보조튜브'와 가스를 주입하는 호스의 봉합과정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호스는 딱딱했고, 보조튜브로 사용했던 비닐 원단은 부드러웠기 때문에 가스가 계속 새나갔어요. 방학 내내 비닐과 호스를 안정적으로 밀봉할 수 있는 재료를 찾으러 발품 파느라 정신 없었죠."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렇게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것이 '문어발형 구명환'이다.

'문어발형'이란 독특한 이름은 튜브 모양의 구명환에서 문어처럼 여덟 개의 다리가 갈라져 나가기 때문에 붙여졌다. 발명품의 구조는 기존에 알려진 '구명환'과 '보조튜브', 보조튜브에 가스를 주입해 펼쳐지는 '가스통'으로 구성돼 있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고자가 구명환을 받아 가스밸브를 열면 구명환에 달려 있는 보조튜브가 문어다리처럼 여러 방향으로 펼쳐진다. 하나의 구명환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구조될 수 있는 장점을 갖는 것이다.

"원래 자동개방 구명튜브란 게 있었어요. 이 튜브는 개인이 갖고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자동으로 튜브가 개방돼 익사하는 것을 막아주죠.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휴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세 사람은 기존의 구명튜브가 갖고 있던 단점을 보완해 지금의 발명품을 완성했다. 이 발명품은 여러 개의 구명환을 비축할 필요 없이, 인명을 구조한 뒤에 보조튜브를 원래대로 말아놓고 가스를 충전시키면 얼마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여러 사람을 구조하거나 먼 거리의 인명을 구조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게 발명이란 기존에 있는 물건들에서 새로운 쓰임새를 찾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물을 관찰하고 생각하다 보면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간단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믿어요." G

글·정소안 인턴기자

“남과 다른 콘텐츠 차별화 덕을 봤죠”

미림여자정보과학고 ‘틴문화’팀, 특성화고 앱 개발 대회 최우수상 수상

하얗게 눈이 쌓인 미림여자정보과학고 교정에서 ‘2012 특성화고 앱 개발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팀인 ‘틴문화’ 학생들과 지도교사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수상의 기쁨을 전하는 학생들의 순수한 표정 속의 빛나는 눈동자를 보면서 “‘세계 최고’를 바라보는 한국 모바일 업계의 미래가 이들 특성화고 학생들의 어깨에 걸려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었다.

정은주 기자

2012 특성화고 앱 개발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팀인 ‘틴문화’ 학생들과 지도교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함기훈 교사와 김효정, 정누리, 김은지, 김지혜양.

지난 11월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SK T타워에서 중소기업청과 SK플래닛이 개최한 ‘2012 특성화고 앱 개발 경진대회’의 시상식이 열렸다. 특성화고의 모바일 앱 개발자 육성을 목적으로 한 이번 경진대회는 44개교 2백40개 팀, 8백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시작해 장장 7개월에 걸친 여정을 통해 총 20개의 고등학생 앱 개발팀을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에겐 총 5천3백만 원의 상금과 중국 정보통신(IT)기업 방문 등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했다.

최우수상 수상팀으로는 ‘지역별 청소년 문화 행사, 공연 축제 등의 일정을 확인하고 참여 및 봉사 신청 기능을 제공하는 앱’으로 미림여자정보과학고의 ‘틴문화’(김은지·김지혜·김효정·정누리, 2학년)가 선정됐고, 우수상은 울산 애니원고의 ‘Fold&Art’, 한국디지털미디어고의 ‘에버마인드’, 제주 중앙고의 ‘Circle Boom’ 등 3개 팀이 선정됐다. 이 중 최우수상 수상팀인 틴문화팀을 만났다.

수상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들은 입을 모아 “처음 도전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지도교사인 함기훈 선생님도 똑같은 말을 전했다.

“어려서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남학생들이 대거 출전하는 대회라서 고등학교 입학 후에 비로소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된 이 아이들이 이런 큰 상을 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들은 이 학교에 입학 전까진 자신이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실력을 쌓게 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던 평범한 여중생들이었다. 짧은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수업을 받았기에 ‘전국 최고의 실력자’에 오르는 기염을 토할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했다. 대회가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성장한 아이들이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앱의 오락성보다 정보성에 집중

“처음엔 어려웠는데 7개월 동안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실력이 점점 향상됐고, 앱 분야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됐어요.”

정누리양의 얘기다. 접수를 시작한 4월부터 참가팀들에겐 단계별 과제가 주어졌다. 앱 개발의 기본이 되는 주제 발제부터 시장조사, 시장성 판단, 개발 계획 수립 등 단계를 밟아가며 매 단계마다 평가를 받는 엄격한 수행평가가 이뤄졌다. 주어진 과제를 멋지게 수행해 더 높은 점수를 따고자 하는 도전정신이 자연스럽게 실력향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물론 이들이 그냥 따라가기만 해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실력파 고교생들 사이에서 남다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남과 다른 차별화에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이 게임이나 펫 키우기, 그리기 앱 등 오락성이 강한 앱을 개발했던 것과 달리 이들은 ‘지역별 청소년 문화 행사, 공연 축제 등의 일정을 확인하고 참여 및 봉사 신청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성이 강한 앱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지자체의 문화 행사나 축제 일정 등을 알리는 앱은 많지만 청소년을 위한 정보를 특화시켜 알려주는 앱은 없었어요. 여기에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봉사활동 정보를 결합하면 분명히 실용성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죠.”

처음 제안한 김효정양의 설명이다. 정보성 앱을 선택한 만큼 손가는 일도 많았다. 다른 팀들이 디자인이나 게임 아이템 등 앱 개발에 집중하던 때, 이들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전화를 돌려야만 했다.

김지혜양은 “지자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 받은 다음 다시 우리 기준에 맞춰 정리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앱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단계를 알게 된 것 같아 보람도 있었다”고 당시의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중소기업청

2012 특성화고 App개발 경진대회 시상식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본사에서 열린 2012 특성화고 앱개발 경진대회 수상 학생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기획안 정리를 위해 머리를 모으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발로 뛰는 동안 더 예쁘고 보기 좋은 디자인을 정리하는 일은 김은지양의 역할이었다. 뉴미디어 솔루션과의 동급생인 나머지 3인과 달리 김은지양은 뉴미디어 디자인과 소속이다. 졸업 후 삼성전자로 진로가 결정됐다는 실력파 디자이너인 그였지만 경진대회용 디자인은 수업과 사뭇 다른 점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개발실무 직접 경험할 좋은 기회”

“학교에선 이론만 배웠는데 경진대회를 치르면서 미리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 제가 나아갈 방향성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회였어요.”

‘틴문화’ 4인 모두 대회의 의미를 ‘최우수상’이라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찾았다. “다른 앱을 기획할 때 이번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김지혜), “경진대회 과제를 수행하면서 앱 개발이나 앱 분야에 대해 폭넓게 알 수 있게 됐다”(정누리), “프리젠테이션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만 봐도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정도다”(김효정)라는 말처럼 대회 참가 전에 비해 한층 성장한 자신들의 모습에 자부심을 보였다.

현재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얼마 후 있을 중국 연수에 있다. 상하이 IT기업을 방문해 해외 IT산업의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꿈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이들 ‘틴문화’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접하고 온 후 얼마나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지가 사뭇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글·이윤진 객원기자

제3기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들'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참가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또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리다고 근로권리 무시하지 마세요"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들',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활동 펼쳐

대전 충남의 '스마트알바팀' 등 8개팀이 지난 11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들'은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적정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에 관한 내용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내용, 그리고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많은 가맹점 업주들에 대한 법 준수 선도 및 교육·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들'을 아는가?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3년째 중고등학생 청소년 리더를 선발, 교내외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1318'이란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를 의미하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가리킨다.

그리고 '알자알자(RJA)'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할 권리(RJA: Right of Junior Arbeit)를 뜻하는 알파벳 약자와 '알자'(know)는 우리말의 복합어로,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조성하고, 이를 널리 알리자는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들'이 홍보활동을 펴는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적정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많은 가맹점 업주들에 대한 법 준수 선도 등이다.

8개팀 장관상… '스마트알바팀'이 대상 차지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3기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들' 중 활동이 우수한 8개팀을 선발해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여했다.

대상은 대전의 '스마트알바팀'이 차지했다. 유성여고·충남고·보문고·한동글로벌학교·중일고·중앙고로 이뤄진 이 팀은 UCC 제작, 알바 체험, 차량용 스티커 제작·배포, 가두 캠페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쳤으며 방송이나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스마트알바팀의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 수가 3천명에 육박한다. 이 팀은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네이버 오픈 캐스트와 트위터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들'을 홍보했다.

팀의 일원으로 청소년 리더 활동에 참여한 충남고 구현모(충남고) 학생은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근로권리가 무시되는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었다"며 "어른들이 가진 그런 인식들을 바꾸는 것이 활동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알바팀 활동이 끝나는 데 아쉬움을 짙게 드러냈다.

스마트알바팀과 함께 대상을 차지한 또 다른 팀인 '알바트로스팀' 역시 대전을 기반으로 한 팀이다. 대전중앙고·대덕고·충남여고·대전둔원고·대전둔산여고 학생들로 이뤄진 알바트로스팀은 대전 지역 번화가에서 피켓 홍보를 시작으로 책갈피·부채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로고송을 작곡하고, 청소년 근로조건을 보호하자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청소년의 권익보호에 사회 모두 관심을"

또한 미용실, 안경점, 속옷매장, 서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바생들의 고충을 체험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알바 신문고'를 학교에 비치해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의 고충을 상담했다.

우수상은 서울서라벌고의 알ZIP팀, 고양국제고의 트레베일(Travail)팀,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의 조이 오브 유스(Joy of youth)팀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연신중 슈퍼스타A팀, 신동중·대원국제중·도곡중·용강중 연합팀인 알바몬4580팀, 창원 경일중의 훈민정음팀이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들과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커피빈코리아, 탐앤탐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CJ푸드빌(빕스, 뚜레주르), 롯데리아(TGIF), CJ CGV, 롯데쇼핑(롯데시네마), 파리크라상(파리바게트), 한국주유소협회 등 9개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 또는 협회는 최저임금, 근로계약 서면화, 근로시간 준수, 휴일·휴가 보장 등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가맹업주들에 대한 법 준수를 선도하는 교육·홍보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을 차지한 스마트알바팀이 대전의 한 식물원에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3기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들' 시상식이 개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발맞춰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제작·배포하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준수와 권익보호에 필요한 안내·상담·교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기업,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에서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체계를 확충하며, 교육·홍보 등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청소년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G 글·이범진 기자

스마트알바팀 http://blog.naver.com/tmakxmdkfqk

지난 12월 1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스포츠산업 비전제시 2차 포럼에서 골프용품 업체 MFS코리아 전재홍 대표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개척해야 할 신성장동력"

스포츠산업 비전제시 2차 포럼… 국내 스포츠 제조·유통업 전망 밝아

'코리안 특급' 류현진 투수는 지난 12월 10일, LA다저스와 3천6백만달러(6년간)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향, 이보연 등 한국계 골프 선수들은 8명이 무더기로 2013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했다. 우리 선수들의 뛰어난 경기력이 해외에서 잇달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12월 1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스포츠산업 비전제시 2차 포럼'은 국제경쟁력을 위해 한국 스포츠산업계가 나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스포츠산업협회가 주관한 이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 방송중계권 10조원(2013년), 메이저리그 방송중계권 6조원(2006년), 나이키 매출액 약 23조원(2011년) 등 천문학적 매출 규모를 가진 세계 거대 스포츠 시장에서 한국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진단, 우리 스포츠산업계가 향후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29일 '한국 스포츠산업, 제대로 보고 있는가?'를 주제로 개최된 '한국 스포츠산업 비전제시 포럼'에 이은 두번째 토론의 장이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참가자들은 '어떻게 하면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최근 세계 스포츠산업은 IT기술·건강·관광 등 인접 분야와 융·복합화, 글로벌화하는 뚜렷한 추세에 있다. 2012년 미국 드라이버 샤프트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해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MFS코리아 전재홍 대표는 '융·복합, 한국 스포츠산업의 미래'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박지성, 박세리, 추신수, 김연아, 손연재 등 많은 스포츠 스타를 배출했고 런던올림픽에선 종합 5위를 차지한 스포츠 강국이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가 없다"고 말했다.

한류 열풍에 발맞춰 세계적 브랜드 육성해야

그는 "드라마, 패션, 화장품, 대중음악, 스포츠 스타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에 발맞춰, 세계적 국내 스포츠 브랜드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전 대표는 국내 스포츠산업 규모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기준 33조4천4백39억원 규모라고 추정했고, 휠라코리아는 2012년 기준 50조원 규모로 평가했다"며 "우리 스포츠산업계는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스포츠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앞섰던 시대를 지나,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시대를 거쳐, 현재 여타 산업과 연계돼 시장이 확대되는 복합산업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국내 스포츠 제조업과 유통업의 전망은 여타 업종에 비해 매우 밝다"고 주장했다.

국내 프로농구 LG 세이커스 김완태 단장은 '프로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 및 전망'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한국 프로야구 관중이 연간 7백만명을 돌파했고, 프로 골퍼들의 해외 진출이 이어지는 등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 시스템은 선진화 단계에 돌입했다"며 "스포츠산업 육성이란 공동 목표를 향해 기업, 선수, 협회, 팬, 언론, 지자체 등 관계자가 역할을 정립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산업 비전제시 2차 포럼에 앞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양궁기업 윈앤윈이 대상을 차지했다.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가운데) 이 시상했다.

김 단장은 "미국의 스포츠산업 매출규모는 2백30조원으로, 자동차산업의 2배에 달한다"며 "스포츠는 21세기의 황금알을 낳는 비즈니스이자, 차세대의 블루오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세계 스포츠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구단, 지자체, 스포츠협회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의 패널로는 강호정 배재대 교수, 한남희 조이포스 사장, 조정훈 조선일보 스포츠부장, 전용배 동명대 교수, 심찬구 스포티즌 사장, 김완수 KBS 기자 등이 참여해 한국 스포츠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축사에서 "스포츠산업은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개척해야 할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스포츠산업은 1, 2차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며 "연 80만~1백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스포츠와 관광, 스포츠와 IT를 결합하면, 새로운 영역의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며 스크린 골프의 예를 들었다. "스포츠와 IT를 결합한 이 시장을 통해 연매출 1조7천억원, 방문객 2천만명이라는 적잖은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스포츠산업 대상에 양궁기업 '윈앤윈' 수상

이번 포럼에 앞서 '제8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대상은 세계 양궁시장 매출 1위(50퍼센트 이상)를 달성한 '윈앤윈'이 차지(대통령 표창, 부상 1천만원)했다. 최우수상은 미국 골프 샤프트 분야 점유율 3위를 기록한 'MFS 코리아'가 수상(국무총리 표창, 부상 7백만원)했다.

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부상 5백만원)은 국내 자전거 제조 매출 2위인 알톤스포츠, 스포츠 무인화 시스템 기업인 혁산정보시스템, 국내 3대 러닝머신 제조기업인 태영산업, 인조잔디용 천연 충진재를 개발한 '금룡'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정종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시상식 축사에서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흘린 기업인들의 땀과 노력을 치하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포츠산업 현장을 지키며 뜻 깊은 성과를 창출해 주신 분들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글·이범진 기자 / 사진·이경민 기자

학부모 자녀걱정… '필통톡'에 물어보세요

교육정책 소통 프로그램… 10개월간 토크쇼 활동, 책으로 소개

Q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면접은 둘째치고라도 우선 서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경험이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주위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한 줄이라도 더 써넣으려고 돈과 시간을 들이던데요."

A "입학사정관 전형은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사교육을 통해 또는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화려한 스펙이 아닌 학교생활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행동으로 이어나가는 '과정'이 평가 대상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한 주제로 열린 '필통톡' 토크 콘서트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입학전형 전문 교수 간에 이뤄진 문답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7월 '필통톡' 토크 콘서트에서 '미래 인재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학부모들 의견 수렴해 정책에 반영도

필통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고민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전문가들은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입제도, 진로교육, 창의·인성교육 등 학교 이야기를 주제로 직접 현장을 찾았다. 토크 콘서트 형식인 이 강연은 올해 2월에 처음 열린 이후 학부모의 열렬한 호응을 얻으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전국 21개 도시에서 27회 열렸고, 총 7천여명이 함께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기획팀은 필통톡 토크 콘서트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한데 모아 엮은 중앙북스사〈필통톡, 학부모 걱정에 답하다〉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전문가가 꼭 알아야 할 교육제도를 소개하는 안내서다. 정부의 교육정책과 가정의 자녀교육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고민에 접근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이었던 공교육에 대한 선입견에서 탈피하기 위해 현장으로 다가갔던 '필통톡' 토크 콘서트의 의도를 충분히 살렸다.

또한 초·중·고 각 학교별과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을 추가한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창의·인성교육, 진로교육, 입시정책, 학교폭력 예방 등 교육제도와 주제로 나뉘었다. 학부모들의 솔직한 궁금증과 질문을 중심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빠르게 찾아서 읽어볼 수 있다.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의견을 얻어 정책에 반영했던 실제 사례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책에 소개된 한 학부모는 필통톡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설립된 'wee센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학생이 wee센터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아라는 나쁜 인식을 줄 수 있고,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가정 문제 등으로 상담에 소극적이게 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수를 각각 5백명, 3천5백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학교폭력 상담코너'를 운영하도록 추진했다. 이 밖에 각 장의 마무리에는 알아두면 좋은 정보나 인터넷 사이트,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특히 부록에서 에듀팟과 커리어넷 등 꼭 알아둬야 할 교육 사이트 활용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G

글·정소안 인턴기자

한 통신사의 4G LTE 체험관에서 이용자들이 서비스 체험을 하고 있다. 차세대 이동통신 LTE는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의 IT환경은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LTE · 싸이 유튜브 확장 '빠름 빠름'

게임 '애니팡'이 이끈 카카오톡 성공… 모바일 시대 주도권 확보

2012년 국내의 IT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원조 포털인 야후가 끝내 한국에서 철수할 정도로 '국내 포털이 득세'했으며 유튜브에 올린 싸이의 강남스타일 조회수 9억 돌파는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의 위력을 상징한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LTE 사용자가 1천만명을 넘어섬으로써 IT 환경도 본격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었다. 주요 사건을 통해 국내 IT 트렌드의 흐름을 알아본다.

LTE 1천만 시대

음성통화요금제 시대 종말… "통신사만 몰라?"

차세대 이동통신인 LTE는 완전한 데이터 통신으로 음성통화까지 디지털 데이터로 처리한다. 언제 어디서나 무선랜보다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쓸 수 있으므로 훨씬 또렷해진 음성통화, 끊김 없는 데이터 통신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 국민이 24시간 온라인에 연결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서비스 업체들은 이런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하여 무료 문자뿐만 아니라 무료 음성통화까지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수익 감소를 우려해 이런 서비스를 막고 있다. 그러나 달라진 환경에 역행하는 시간이 계속된다면 통신사의 미래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

완전한 데이터 통신 시대에는 음성통화와 데이터 통신을 구별할 수 없다. LTE시대에 음성통화 요금을 따로 받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미 해외에선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음성통화요금제를 폐지하고 데이터 전용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더 많은 업체들이 데이터 통신을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통신사가 나아갈 방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류와 IT의 만남

한국 자체에 폭발적 관심… 새 한류시대 열어

싸이의 '강남스타일' 온라인 조회수 9억 돌파는 전 세계 뮤직비디오 중에서 가장 빠른 기간에 가장 많은 조회 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여전히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당분간은 이 기록을 깰 콘텐츠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통해 한류가 외국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싸이 이후 한류의 전개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에 대히트를 하면서 인터넷의 위력이 새삼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강남스타일의 성공에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유튜브는 각종 동영상을 전 세계에 무료로 전송할 뿐만 아니라 조회수가 늘어날 경우 저작권자에게 수익도 분배해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르다.

만약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한국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 올렸다면 이런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폐쇄적인 한국 사이트에 외국 사용자가 오지도 않을뿐더러 오더라도 이들이 국내 사이트의 동영상을 볼 때마다 인터넷 업체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포털의 검색 공정성 논란

네이버, 검색어 목록 등 외부 검증 선언

201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인터넷 포털의 공정성 논란이 자주 발생했다. 검색어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뉴스 캐스트의 선정적인 기사로 인해 정작 국민이 알아야 하는 기사는 배제된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런 비판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역시 70퍼센트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네이버였다.

불공정성 문제가 사이트의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자 네이버는 최근 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론사 첫 페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가판대 형식으로 뉴스 캐스트를 개편하여 낚시 기사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네이버 트렌드 페이지도 열었다. 트렌드 페이지는 검색 통계를 보여주는 서비스로 이를 잘 활용하면 시기별로 달라지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검색 공정성과 조작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이 서비스로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원 데이터를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

SNS의 진화

소셜앱 통한 유료콘텐츠 판매 나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진화가 눈부시다. 카카오톡은 7천만 사용자를 넘어섰고 네이버 라인도 외국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8천만명을 돌파했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 불과했던 카카오톡은 다양한 업체를 끌어들여 모바일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다.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상대보다는 아는 사람들과 성적을 겨루는 것이 더욱 더 큰 재미를 주기 때문인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소셜 게임업체 징가가 플랫폼을 제공한 페이스북의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단순한 게임인 '애니팡'이 카카오톡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애니팡'의 성공에 자극받아 다양한 소셜 게임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카카오톡의 사용자가 더욱 늘어나면서 게임뿐만 아니라 콘텐츠 판매기능 등 또 다른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다.

만약 소셜앱을 통한 유료 콘텐츠 판매 시도가 성공한다면 카카오톡은 모바일 메신저를 넘어서 페이스북을 능가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어쩌면 무료 음성통화를 막고 있는 통신사들이 모바일 시대의 주도권을 쥔 카카오톡에게 인수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국내외로 많은 일이 있었던 2012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G

글 · 김인성 (IT칼럼니스트)

보정동 카페거리에는 작은 카페와 레스토랑 숍들이 죽 늘어서 있다.

박영도씨가 대리석 테이블 위에서 초콜릿 템퍼링을 하고 있다.

초콜릿과 낙조… 카페거리엔 이국적 낭만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추운 12월을 보내는 요즘은 짧은 외출조차 마뜩치 않다. 그렇지만 즐거운 연말 분위기를 그냥 놓치긴 아깝다. 그렇다면 가까운 수도권 변두리로 가벼운 나들이를 떠나보면 어떨까. 도시와 자연 그리고 예술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도시, 용인을 추천한다.

'자연 속 도심' 용인의 달콤한 겨울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에 위치한 '은하초코기사단'에 도착했을 때 인근 중학교에서 온 80여 명의 학생들이 회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초콜릿의 원산지는 멕시코예요. 멕시코 사람들은 카카오 열매를 '신의 음식'이라 부르며 차처럼 음료로 마셨죠. 당시 카카오 열매는 화폐로도 쓰였는데 10알로는 토끼 한 마리를, 10알로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었답니다."

달콤한 초콜릿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는 학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모현면 동림리에 위치한 이곳은 쇼콜라티에 박영도씨가 운영하는 초콜릿 작업장. 이곳에서 박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재미난 초콜릿 강좌를 펼치고 있다.

'은하초코기사단'에선 초콜릿 만들기 체험

카카오 열매에서 카카오버터와 카카오매스를 추출한 뒤 적당한 온도에서 그 둘을 다시 잘 혼합해야 초콜릿이 된다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시작으로 '초콜릿'이라는 정확한 표기를 붙이려면 카카오매스 함유량이 20퍼센트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았다거나, 보통의 초콜릿이 손에서 녹아버리는 이유는 카카오버터 대신 대두유나 팜유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액체화된 초콜릿이 등장했다. 그는 토치에 불을 붙여 대리석 테이블의 온도를 높였고 적당한 온도가 되자 통에 담긴 초콜릿을 단번에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달콤한 향이 순식간에 너른 공간을 가득 채웠고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리저리 주걱으로 초콜릿의 온도를 낮추는 과정인 템퍼링(tempering)이 재빠르게 진행됐다.

실제로 템퍼링은 초보자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험 중에서는 전문가가 이 과정을 대신해준다. 아이들이 만들 초콜릿은 아몬드와 호두 등의 견과류와 크랜베리와 오렌지껍질 따위를 말린 것을 얹은 만디앙초콜릿. 주머니에 든 초콜릿을 5백원짜리 동전 크기로 짜낸 다음 그 위에 마음대로 토핑을 얹으면 되는데 초콜릿이 꽤 빠른 속도로 굳기 때문에 재빠르게 만들어야 된다. 조심조심 초콜릿을 짜내고 토핑을 얹던 학생들은 이내 초콜릿으로 아예 그림을 그려댄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양말도 만들더니 곰돌이도 하트도 만든다.

아이들이 만든 초콜릿은 진하고 달콤하며 상쾌한 쓴맛을 가졌다. 카카오매스 78.5퍼센트의 리얼 초콜릿의 맛이다. 남미 칠레에서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박영도씨는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자연스럽게 쇼콜라티에가 됐다. 고향인 모현면에 정착한 그는 마을에서 생산한 호박을 이용한 초콜릿은 물론 홍삼이나 인삼 등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우리 입맛에 맞는 초콜릿 개발에 나서 지금까지 양파·당근·마늘·시금치초콜릿 등 여러 가지를 개발했다.

지난해 김천 자두축제를 앞두고 개발한 자두초콜릿과 대구 달성의 다사농협과 함께 만든 쌀초콜릿은 지역특산물로도 성공한 초콜릿으로 평가받는다. 2009년에 오픈한 초콜릿공방의 강좌는 매년 1만5천명 이상이 찾을 만큼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박물관과 갤러리 곳곳에… 백남준 특별전도

용인은 멋진 갤러리와 박물관이 가득한 도시이기도 하다. 그중 단연 으뜸은 백남준아트센터이다. 내년 1월 20일까지 계속되는 '노스탤지어는 피드백의 제곱'이 전시 중에 있다. 백남준(1932~2006)이 생전 직접 이름 붙인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백남준아트센터는 독특한 외관과 더불어 건물을 둘러싼 담과 바닥을 자연스럽게 이어놓은 작은 검은 블록들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 멋진 아트센터 안에 어떤 재미난 것들이 있을지 상상해보는 일도 즐겁다.

예술 전공자가 아니라면 다소 난해할 수 있는 백남준의 작품 세계를 좀더 쉽게 이해하기에는 전문 해설사가 진행하는 전시투어에 참여하면 좋겠다. 갤러리에서 가장 먼저 만난 작품은 자전거를 타고 심해 잠수부의 헬멧을 쓴 칭기즈칸(징기스칸의 복권)과 꽃으로 가득 채운 자동차 마르코 폴로(마르코 폴로), 스쿠터에 올라탄 인디언(즐거운 인디언). 자전거와 자동차, 스쿠터라는 '탈 것'에 온갖 정보 전달의 수단(컴퓨터와 TV 등)들을 싣고 '이동'하며 '소통'한다는 의미를 표현했다.

더없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로봇 K-456' 앞에서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난다. 1965년에 태어난 이 로봇은 팔을 흔들 며 걸을 수 있고 마른 콩을 배설하며 20채널의 라디오로 조정됐는데 1982년 교통사고를 가장한 퍼포먼스를 통해 죽음을 맞았다. 백남준은 로봇의 죽음을 통해 당시 사회분위기였던 기술만능주의를 비판하고 기술 역시 인간에 의한 것임을 알리고자 했다. 이번 전시는 백남준의 탄생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다.

용인8경 중 두번째인 어비낙조의 풍경이 꽤 볼 만하다.

1 백남준의 '징기스칸의 복권'. 자전거를 탄 칭기즈칸을 통해 문명과 기계의 이동과 소통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2 리얼초콜릿을 이용해 만디앙초콜릿을 만드는 데 열중하는 관광객들.

전시에는 백남준의 작품뿐 아니라 김신일과 이불, 댄 그래험, 루츠 담백, 올라퍼 엘리아슨 등 인간과 기계, 자연의 경계를 넘나들며 소통을 탐구했던 백남준의 예술세계 그 궤적에 닿아 있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게다가 이들의 작품들은 대부분 백남준이 그러했듯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백남준아트센터 뒤편의 경기도어린이박물관도 한번 찾아갈 만하다. 지난해 가을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전용 박물관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체험 전시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만 4세 미만의 유아들이 뒹굴며 놀 수 있는 자연놀이터와 운동선수가 돼보는 튼튼놀이터 등을 비롯해 2층에는 물을 이용한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놀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물놀이터(한강과 물)가 있다.

맞은편에는 블록 쌓기와 집짓기를 통해 건축물 축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건축 작업장도 있다. 마치 어린이를 위한 거대한 실내 놀이공원 같은 이곳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가며 동시에 환경과 자연,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이끈다. 박물관 각 공간의 주제를 따라 가며 아이들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이 전시를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학습을 지원하는 안내지가 곳곳에 마련돼 있어 부모에게도 도움을 준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과 어린이를 위한 공연도 종종 열린다. 단 1일 관람 인원이 제한돼 있어 주말에는 미리 예약하고 가는 게 좋다. 박물관 홈페이지(www.gcmuseum.or.kr)에서 하면 된다.

보정카페거리 거쳐 어비리 낙조로 마감

보정동 카페거리에서는 괜히 마음이 설렌다. 거대한 아파트촌 한가운데 숨은 12월의 보정카페거리는 따뜻하고 기분 좋은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따뜻한 톤의 컬러로 페인팅한 수제버거 가게, 구수한 커피 볶는 향 흘러나오는 카페, 크림색 커튼이 드리워진 우아한 브런치 레스토랑,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멋을 낸 펍, 갓 구워낸 빵 냄새 가득한 케이크 가게, 접시 부딪치는 소리마저 명랑하게 들리는 이탈리아식 가정요리를 내는 레스토랑까지.

이 거리에는 온갖 좋은 냄새와 유쾌한 소리, 보기 좋은 것들로 가득하다. 바둑판 모양의 9개 블록에 1백12개의 점포들이 골목골목 늘어선 보정동 카페거리는 2003년 무렵 탄천변 주상복합건물과 함께 생겨났다.

보행자 전용도로인 메인로드는 잘 자란 가로수들이 있어 더 운치가 있다. 꼬마전구를 몸에 감은 겨울날의 가로수들은 낭만 가득한 분위기를 만든다. 수천 권의 책들이 천장 높은 카페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카페 '에코의 서재'나 브런치 레스토랑 '플레이트 607' 또는 디저트 카페 '아임홈' 등이 유명하다.

12월의 마지막 일몰을 용인 처인구 이동면의 어비리 저수지에서 보는 것도 괜찮다. 어비낙조는 용인이 자랑하는 8가지 아름다운 풍경 중 두번째. 저수지가 들어앉은 어비리(漁肥里)는 지형이 물고기의 날개 지느러미처럼 생겼다고 해 옛날부터 어비촌이라 불렸다.

본래 이 마을을 지나는 큰 내가 있었고 오래전 이를 장호천이라 했는데 묵리, 서리, 천리에서 흐르는 물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용인에서 안성으로 이어지는 황금 평야를 위해 1972년 제방을 쌓아 '송전저수지'라는 이름을 붙였다. 저수지는 용인에서 안성으로 이어지는 45번국도를 따라 가면 만날 수 있다. 저수지가 워낙 넓다 보니 일몰 포인트도 여럿이다.

송전에서 묘봉리로 들어서는 언덕길에서 보이는 낙조도 멋지고 저수지의 수상 좌대를 배경으로 한 일몰도 낭만적이며 주변에 있는 삼봉산, 시궁산에 올라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갈대숲 사이로 붉은 태양이 스러지는 광경도 일품이다. 이 저수지에 붕어, 잉어, 가물치, 메기 등이 풍부해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들도 많고 이 신비로운 풍경을 뷰파인더에 담으려는 사진가들의 출사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G

글 · 고선영 (여행작가) / 사진 · 김형호 (사진작가)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은하초코기사단(☎031-321-1088)**은 분당을 지나 죽전역에서 레이크사이드cc방향 43번국도를 따라 가면 길가에 보인다. 죽전역이나 분당 미금역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 보정동카페거리는 분당선 죽전역 2번 출구, 도보로 7~8분 거리이다. 초콜릿강좌 4인 가족 기준 5만원이며 미리 예약해야 한다. **백남준아트센터(☎031-201-8571)**는 분당선 보정역에서 하차해 116-1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평일 오후 2시·4시, 주말 오전 11시, 오후 1시·2시·4시에 전시투어가 있고 둘·넷째 월요일은 휴관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031-270-8600)**은 백남준아트센터 뒤편에 있다.

먹을 곳 보정동 카페거리에 이름난 맛집들이 모여 있다. **'플레이트 607'(☎031-263-3607)**은 인기 높은 브런치 레스토랑이다. 고르곤졸라와 유자로 맛을 낸 피자와 해물오일 파스타, 평일에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의 브런치 메뉴가 인기다. 디저트카페 **'아임홈'(☎031-265-7791)**은 컨트리풍의 예쁜 인테리어와 좋은 재료를 사용해 구워낸 케이크와 오후 5시까지 맛볼 수 있는 브런치 때문에 하루종일 북적이는 곳. 메인로드 뒷골목의 **'타이테라스'(☎031-898-0913)**는 현지인 셰프가 요리하는 맛있는 태국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다.

용인시청 여행정보 사이트 http://tour.yongin.go.kr
용인시청 관광과 ☎031-324-2068
경기관광공사 ☎031-1330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 ☎031-120

조선시대 배달해장국, 효종갱

해장은 예나 지금이나 주당들의 아침 과제이자 즐거움이다. 술도 깨야 하고 출출한 속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술을 깨는 방법도 갖가지다. 실학자 서유본의 부인이자 그 자신이 빼어난 학자였던 빙허각 이씨가 1809년에 저술한 여성생활백과 〈규합총서〉는 사대부들의 숙취해소비법을 소개하고 있다. "밀실에서 뜨거운 물로 세수하고, 머리를 수십 번 빗질하면 좋다"고 했고, "술 마시고 목이 말라도 찬물을 마시지 마라"거나 "소금으로 이 닦고, 더운 물로 양치질을 하면 숙취가 가신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신선불취단(神仙不醉丹)이나 만배불취단(萬盃不醉丹), 취향보설(醉鄕寶屑) 등 술 깨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의 제조법도 소개하고 있는데, 빙허각이 그 효과를 직접 검증했다고 한 걸 보면 당시의 부인네들도 남편의 건강관리에 상당히 신경 썼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양 사람들은 해장을 위해 토마토주스에 보드카를 넣은 칵테일을 마시기도 하고 절인 청어를 맥주와 함께 먹기도 한다지만 해장에는 단연코 우리식 해장국이 제일이다. 뜨뜻한 국물로 속을 다스리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월탄 박종화는 1960년대에 쓴 수필에서 "동지섣달 길고 긴 추운 밤을 지내다가 새벽이 찾아와서 일을 하러 직장으로 나갈 때, 찬밥 한 덩어리를 들고 양골 끓이는 술집으로 찾아가서 약주술 두서너 잔에 양골로 안주를 하고 밤 지낸 빈 창자에 술국밥을 먹는 맛이란, 그 시절만은 천하의 행복을 독차지한 성싶다"고 했을 정도이다. 양골국은 뼈다귀에 우거지와 된장을 넣고 끓인 해장국이다.

해장국을 흔히 술에 찌든 내장을 풀어준다는 의미의 해장(解腸)국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숙취를 풀어주는 국이라는 뜻의 해정갱(解酊羹) 또는 해정탕(解酊湯)에서 비롯된 말이다. 갱은 국의 옛말로 18세기 중엽의 〈증보산림경제〉는 국물이 많은 국을 탕, 건더기가 많은 국을 갱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록에 나오는 해장국의 원조는 성주탕(醒酒湯)이다. 고려 말의 중국어 회화교본 〈노걸대(老乞大)〉는 성주탕을 "육즙에 정육을 잘게 썰어 국수와 함께 넣고 천초가루와 파를 넣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남한산성에서 새벽에 사대문 안 대갓집으로 배달

해장국에도 반열이 있었다. 서민들은 선짓국이나 양골국을 먹었지만 조선시대의 지체 높은 양반들은 호사스러운 해장국을 즐겼다. 요즘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생소한 효종갱이 바로 그것이다. 호칭도 예사롭지 않은 남한산성 갱촌의 명물, 효종갱은 새벽 효(曉), 쇠북 종(鐘), 국 갱(羹)자를 쓴다.

갖은 재료를 넣고 밤새 끓이다가 새벽녘에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종이 울려 퍼지면 사대문 안의 대갓집으로 배달되어 지난밤 술로 시달린 사대부들의 쓰린 속을 달래주던 음식이다. 우리나라 배달음식의 원조라 할 만하다.

1925년에 간행된 최영년의 〈해동죽지〉는 효종갱에 대해 "광주 성내 사람들이 잘 끓인다. 배추 속대, 콩나물, 송이, 표고, 쇠갈비, 해삼, 전복에 토장을 풀어 온종일 푹 곤다. 밤에 이 국항아리를 솜에 싸서 서울로 보내면 새벽종이 울릴 무렵에 재상의 집에 도착한다. 국 항아리가 그때까지 따뜻하고 해장에 더없이 좋다"고 기록하고 있다.

내용물만 보더라도 값진 재료가 많이 들어간 것이 여간 사치스러운 보양식이 아니다. 게다가 변변한 교통수단도 없던 시절에 남한산성에서 서울시내까지 배달했다니 그 정성만으로도 귀한 음식이 아닐 수 없다. 옛날에 갱촌이 있던 동네인 경기도 광주의 '고향산천'에 가면 효종갱 맛을 볼 수 있다. G

글 · 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이순신 장군이 대쪽인 이유

세종 때의 문신인 **이변**(李邊·1391~1473)은 크게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김하와 더불어 조선의 외교 및 통역 제도에 깊은 영향을 남긴 데다가 이순신의 직계 조상이라는 점에서 그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변은 1391년(공양왕3년) 고려 말 사재시 판사를 지낸 이공진의 아들로 태어났다. 조선이 개국되기 1년 전이다. 그는 세종1년(1419년) 남들보다 많이 늦은 29세에 문과에 급제해 승문원 박사가 되었다.

〈국조인물고〉에 따르면 그의 성품은 지나칠 정도로 곧았다고 한다. "사람됨이 정직하여 이중적인 간격이 없이 겉과 속이 한결같았다. 사람의 과실을 보면 문득 면전에서 힐책하였다. 이조참의가 되어 매양 인사의 전형(銓衡)을 할 때는 윗사람이 하는 것을 많이 공박하였다."

이변은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승문원에서 뛰어난 중국어 솜씨로 명성을 얻었다. 세종은 이런 이변을 총애했다. 세종은 원래 중인 신분의 역관이 담당하던 통사(通事·동시통역사)의 일을 문신들에게 맡겼다.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우수한 인재에게 맡겨야 한다는 신념에서였다.

세종16년(1434) 2월 1일 승문원 첨지사 이변은 이조정랑 김하와 함께 조선초 사역원 설립의 1등공신인 설장수가 지은 중국어 입문서 〈직해소학〉을 요동의 어학전문가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 요동을 방문한다. 그런데 이를 전하는 실록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온다.

직계 조상과 후손들이 대대로 닮은꼴 성품

"이변은 그 사람됨이 본래 아둔하였는데 나이 30이 넘어서 문과에 급제해 승문원에 들어가 한어를 배웠다. 목표를 정한 뒤에는 밤을 새워가며 강독하고 한어를 잘한다는 자가 있다는 말만 들으면 반드시 그를 찾아가 질문해 바로잡았다. 이로 말미암아 한어에 능통하게 되었다."

김하는 유연했고 이변은 깐깐했다. 그래서 세종은 김하에게는 외교실무를 맡겼고 이변에게는 통사교육을 맡겼다. 분담이었다. 이후 6조의 참의를 두루 거친 이변은 세종31년(1449) 참판급에 오르고 계유정난 직후 형조판서에 오른다. 이 점을 보면 이변은 수양대군을 적극 돕지는 않고 방조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변은 훈구의 일원이 되어 탄탄대로를 달리게 된다.

뒤늦은 29세에 문과 급제한 승문원 박사 이변은 강직한 성품으로 과실을 보면 면전에서 힐책 손자도 언관으로 부정한 관리는 단호히 탄핵 그 증손인 이순신도 판박이 행실로 많은 고초겪어

특히 세조 때에는 공조판서를 거쳐 중추원으로 물러나 중추원 지사, 판사, 영사까지 지낸다. 정치적 위기를 잘 넘기고 크게 출세한 인물이 된 것이다.

이변에게는 이효조, 이효종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중 이효조의 아들 이거(李据)가 이순신의 증조할아버지다. 이거에 대해 실록은 "성품이 강직하여 언관으로 있으면서 부정한 관리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탄핵하였다"고 평하고 있다.

이순신의 조부 이백록도 벼슬에 나아갔지만 사화를 당해 고초를 겪었고 그 때문에 아버지 이정은 벼슬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4형제의 이름에는 정치에 대한 꿈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이희신(李羲臣), 이요신(李堯臣), 이순신(李舜臣), 이우신(李禹臣). 중국 고대의 제왕 복희,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을 받드는 신하처럼 살라는 뜻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G

글 · 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횡설과 수설〉

주자학, 식민사관 벗겨내고 다시 보기

이승환 지음
휴머니스트 · 2만5천원

다카하시 도루. 사실 책 본문에서는 슬쩍 한번 언급하고 지나치는 이름이다. 그러나 조선 유학계의 이기(理氣) 논쟁을 다룬 〈횡설과 수설〉은 결국 이 이름을, 이 이름으로 상징되는 하지만 식민사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다. 식민사관 극복이란 말을 보고 미리부터 통쾌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저자는 그 대의명분 때문에 그동안 우리끼리 너무 자화자찬한 게 아니었을까 하고 되묻는 쪽이다. 퇴계를 독자적 사상가로 상찬하는 것을 두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비유해 '퇴계 공정'이라 할 정도니까.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 1878~1967)는 일제 관학자 1세대로 경성제대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조선인의 사상, 문화, 종교 등을 연구했다. 당연히 좋게 말할 리 없다. 바보들이지만 불쌍하기도 하니까 잘 토닥이고 가르치면 될 것 같다는 내용이다.

우리로서야 분통 터질 노릇이지만 역사적 급변기에 워낙 영향력이 컸던, 그래서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는 주장이어서 궁금하다면 직접 번역본을 찾아보길 권한다.

이기론으로 범위를 좁히자면 쟁점은 주리(主理)냐, 주기(主氣)냐다. "조선 사대부들은 이(理)와 기(氣)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한가 같은 쓸데없는 논쟁만 벌이다 망했다" "실학처럼 훌륭한 학풍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영향력이 없었다"는 우리 귀에 익숙한 줄거리를 처음 만든 이가 다카하시 도루다.

실학에 대한 우상화 작업은 요즘 제법 수정되는 모양새다. 가치 있는 개혁사상이지만 실학이 유학에 대립한다기보다 그 가운데 하나였다고 보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렇다면 이기론은? 학창시절 추억 한 자락이 떠오를 것이다. 뭐가 뭐 위에 올라탄다는 둥, 뭐가 먼저 발하고 뭐가 나중에 따라온다는 둥 하던 알쏭달쏭한 얘기들 말이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라 이미 그때 다카하시 도루의 주장에 공감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감히 조선인을 능멸한 자의 주장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법. 그 때문에 탄생한 무기가 '조선 유학의 독창성'이다. 발원지인 중국을 능가한 조선만의 독창적인 철학 논쟁이 있었다는 식의 해석이다.

저자의 공격 포인트는 여기다. 반박할 욕심에 너무 오버했다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은 책 제목 그대로다. '횡설'은 이와 기를 가치론적으로 수평으로 대등하게 배치했다는 뜻이고, '수설'은 이와 기를 존재론적으로 주종 관계로 배치했다는 뜻이다.

퇴계 이황, 고봉 기대승, 우계 성혼, 남명 조식, 율곡 이이 등 조선 유학 거장들의 다툼이 결국 이 두 프레임 간 싸움이었다고 설명해나간다. 이 논리는 직접 읽어보는 게 좋겠다. 학창시절 추억 때문에 미리 겁낼 필요는 없다. 저자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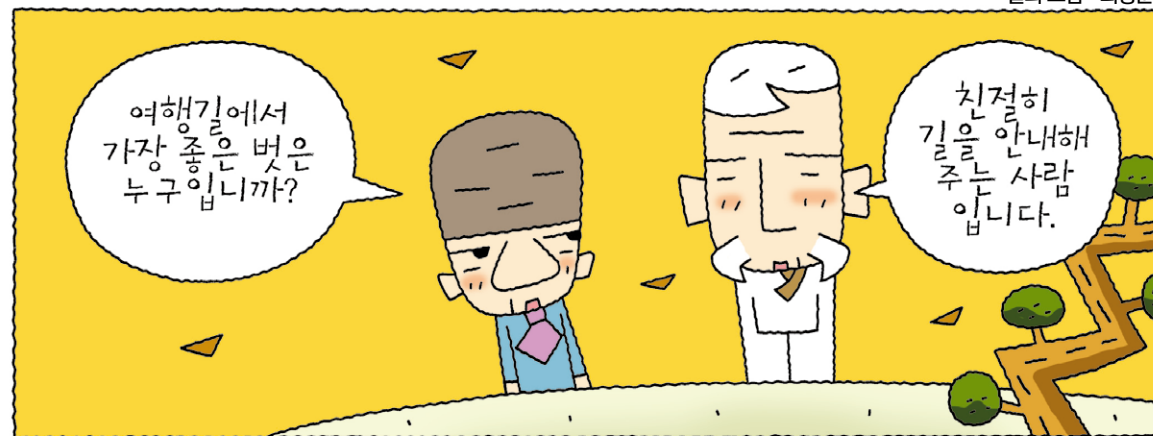
"이기론은 주자학의 횡설과 수설로 같은 뿌리"

결론은 이렇다. 정작 주자는 횡설과 수설을 번갈아가며 잘 써먹었는데, 조선 유학자들은 횡설과 수설이 같은 뿌리임을 모른 채 횡설과 수설 양편으로 나뉘어 싸웠고, 그게 조선시대 이기 논쟁의 전부라는 것이다. 왜 횡설과 수설이 같은 뿌리인지 몰랐던가. 출판문화의 미발달과 경직된 사회분위기 때문이다. 중국 책을 많이 찍어서 널리 돌려 읽은 다음 논리적인 토론을 벌였어야 했는데, 부족하고 한정된 책을 읽고 자기가 읽은 부분만 옳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그 주장이 우리 집안 혹은 우리 스승의 말씀이니 배신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금, 아니 많이 허탈한 결론이다. 그럼에도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했다는 아픔과 열등감 때문에 우리만의 전통적인 그 무엇을 과대포장하고 신비화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저자의 메시지만큼은 강렬하다. 차라리 이기론을 뒤덮고 있는 신비주의 장막을 벗겨내 현대철학과 접목시켜보자는 저자의 제안은 감미롭다. 물론 저자의 주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는, 독자의 몫이다. G

글 · 조태성 (서울신문 문화부 출판팀장)

가장 좋은 벗

글과 그림 · 최영순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 오드리 햅번 '아들에게 쓴 편지' 중에서

'2012 공예 트렌드 페어'에서는 도자, 유리, 목칠, 금속, 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예인 6백여 명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생활의 도구? 오브제? 공예, 그것이 알고 싶다

〈2012 공예 트렌드 페어〉

〈2012 공예 트렌드 페어〉가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공예 트렌드 페어'는 변화된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도자, 유리, 금속, 섬유, 목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예인 6백여 명이 생활의 도구로서의 공예, 오브제로서의 공예 등 다양한 공예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주제관, KDCF홍보관, 해외초대관, 산업관 등 총 10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관에서는 이번 박람회의 주제인 '재발견, 공예와 지역성'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전시한다. 과거와 현재, 문화와 산업, 공예와 디자인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성'이 오늘날 어떠한 양상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는지 보여준다. '창작공방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신진작가 및 중견작가들의 기획전시를 통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공예의 가치와 미(美)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행사장 내 '토크&스테이지'에서 다양한 워크숍과 학술 세미나가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세계화와 공예의 지역성'이라는 주제로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공예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한다. 워크숍에서는 현대적인 디자인 속에서 버려진 재료들을 이용한 업사이클링(upcycling) 공예품을 직접 제작해볼 수 있다. G

정리·정소안 인턴기자

기간 12월 21~24일 **장소** 코엑스 홀 A-1,2,3 **문의** ☎02-398-7947

공연 왕조의 꿈, 태평서곡

조선시대의 음악과 춤을 볼 수 있는 궁중연례악 〈왕조의 꿈, 태평서곡〉이 12월 23일까지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열었던 궁중연회를 무대예술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헌선도, 쌍고무, 학연화대무, 선유락 등의 궁중무용과 궁중복식, 궁중음식을 그대로 재현한다. 더불어 수제천, 낙양춘, 여민락 등 당대 궁중에서 연주되었던 곡들도 감상할 수 있다.

기간 12월 18~23일 **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문의 ☎02-580-3300

공연 호두까기 인형

국립발레단이 12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호두까기 인형〉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선보인다. 이 작품은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함께 차이코프스키 발레 3대 명작으로 불린다. 2000년에 초연된 이후 12년간 매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스페인, 인도,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춤과 눈의 왈츠, 꽃의 왈츠 등 다양한 춤을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기간 12월 18~25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02-580-1300

12월 셋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12월 1~7일

	곡명	가수
1	되돌리다	이승기
2	카페인	양요섭
3	크리스마스니까	성시경, 박효신 외 3명
4	다리꼬지마	악동뮤지션
5	백야	넬
6	하얀 설레임	케이윌, 소유, 정민
7	하얀 겨울	김범수&박정현
8	TALK THAT	시크릿
9	나쁜 사람	주니엘
10	Officially missing you,too	긱스, 소유

잘못된 만남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청소년은 더 위험합니다!

K팝! 단군 이래 최대 '약진'

2012년은 두말할 것 없이 싸이 '강남스타일'의 한 해였다. 가요홍보가 어렵다는 올림픽 와중에, 게다가 한국선수들이 선전을 거듭해 가뜩이나 손을 쓸 수 없는 마의 시점을 박차고 솟아오른 이 곡은 순식간에 국내 신드롬을 넘어 글로벌 센세이션으로 번져나갔다. 빌보드 2위에 오른 뒤 1위를 고대한 국내 언론과 대중은 2개월간 새벽잠을 설치며 빌보드 차트만을 눈을 부릅뜨고 주시했다.

빌보드 7주간 2위, 영국 차트 1위를 비롯한 세계 26개국 차트 1위, 유튜브 9억 조회 신기록 등 모든 게 월드토픽이었고 단군 이래 최대의 문화적 쾌거였다. 싸이 자신도 믿기지 않는 듯 "꿈속에서 사는 느낌!"이라고 했다. 전 세계가 말춤에 빠져들었고 갖가지 '스타일'이 봇물 터지듯 나오는 가운데 미국 대선 판에선 '오바마 스타일' '롬니 스타일'까지 등장했다.

강남스타일 대성공은 수년간의 K팝 해외진출과 열풍이 집적되어 나온 산물이었다. 올해 K팝을 싸이로만 정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 같은 YG 소속사의 빅뱅은 월드투어로 기염을 토했고, SM의 간판 소녀시대와 아시아 젊은 팬들에게 '한류의 제왕'으로 통하는 슈퍼주니어는 유닛과 팀으로 올해도 맹활약을 펼쳤다.

샤이니는 '셜록'이란 곡으로 평단의 찬사를 받았으며, 카라는 한국 걸 그룹 중에서는 최초로 일본의 도쿄돔에서 단독공연을 가졌다. '미드나잇'의 비스트와 올해 걸 그룹 최고 히트곡이라고 할 '나 혼자'의 씨스타도 좋은 한 해를 보냈다.

싸이 · 빅뱅 · 인디밴드 등 음악계 풍성한 결실

하반기가 싸이의 독점이었다면 상반기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의 버스커버스커가 석권했다. 이들은 순수한 맛의 통기타 어쿠스틱 사운드를 내걸어 전자음으로 도배된 아이돌 음악과 분리선을 치면서 디지털 복판에서 아날로그 음악의 위력을 발휘했다.

커피전문점, 의류매장, 비어 펍 등 청춘이 집결하는 공간은 이들의 '벚꽃 엔딩' '꽃송이가' '여수밤바다'를 틀지 않고는 배겨나질 못했다. 버스커버스커의 1집 판매량은 톱 아이돌 그룹만이 가능한 10만장 판매를 돌파했다.

영화 〈건축학개론〉에 삽입된 전람회(김동률)의 '기억의 습작'은 1990년대 음악의 재림을 주도하면서 복고의 중심을 7080에서 90으로 이동시켰다. 버스커버스커의 음악도 기본적으로 90 음악에 선이 닿아 있었다. 갑자기 김동률은 물론, 1990년대 가수인 듀스, 015B, 더 클래식 등 아날로그 마지막 시대의 음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인디 음악도 지난해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인디 출신 밴드 국카스텐이 주목을 받았으며,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인 〈탑밴드〉에서 1, 2위를 한 피아와 로맨틱 펀치도 인기가 점프했다. 인디 밴드들은 음반보다도 록페스티벌을 비롯한 공연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일반인들을 사로잡는 히트곡은 내놓지 못해 여전히 미완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레전드 가수들도 빛났다. 패티김은 은퇴선언 뒤 숨 가쁜 순회공연에 돌입했고, 신중현도 성공적인 연말공연을 치렀다. 산울림은 활동 35년을 맞았고 'X세대 대통령' 서태지도 올해가 데뷔 20주년이었다. 전설이든, 아이돌이든, 인디든 가요와 가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이었던 한 해였지만 결과적으로 판을 정리한 것은 싸이였다. 스스로도 '이래저래 잊을 수 없는 해'라고 한 것처럼 2012년과 싸이는 동의어가 됐다. G

글 ·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싸이가 지난 12월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립건축박물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인 워싱턴' 자선공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